

8. 사당동 산22번지(일명 가마니촌)

1) 지역 개요

사당동 산 22번지 판자촌은 1968년 시골 이농 무주택자들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여러차례에 걸친 철거 정책으로 사당동 산22번지는 다른 철거촌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수백가구로 불어나게 되었다.

원래 산22번지에 철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철거가 시도될 때마다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78년 8월 내 집 갖기 운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지역주민들은 내 집을 갖게 된다는 설레임에 총회를 열어 '사당동 산 22번지 재개발지역 추진위원회' 지도부를 구성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도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많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는 결국 지도부 중 한사람이었던 이연수씨의 양심적인 결단으로 폭로되었다.

지도부의 부정이 밝혀지고, 주민들은 이들을 고소했으나 비교적 가벼운 죄목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출소 후 버젓이 다시 간부직을 맡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그들의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주민들을 위협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주민의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454세대 중 200세대가 집을 팔고 나갔으며 나머지 250세대도 이들의 위협과 공갈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주민들은 이들을 각종 기관에 진정하였으나 묵살되었다. 그리하여 판자촌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완전 불신하고, 입주권 구입 거부, 철거 거부를 결심하고 강제철거에 대비 며칠간을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판자촌을 지켰다.

1981년 11월19일 오전 9시 동작구청 철거반이 들이닥쳤다. 그러나 이날의 철거는 철거가 1주일로 연기되었다는 TV 보도를 믿고 동네 남정네들이 하루 품삯을 벌러 나간 사이 자행된 기습철거였다. 기동경찰 640명, 철거반원 260명, 구청직원 650명 등 약 1,600명이 약 250명의 부녀자, 노인, 어린이들만이 지키고 있는 판자촌에 들어닥쳤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재개발 추진위의 부정행위(설계비 부정착복, 토지 매입의 부정, 입주권 남발)와 서울시

의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철거행정 등이 있었던 것이다.

철거 이후 관계 당국은 사당동 산22번지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원래의 판자촌 지역에서 산기슭으로 약1백미터 떨어진 주택과 공터에 150개의 군용 대형천막촌을 마련하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무허가 동네로 방을 구해 나갔다.

2) 관련 자료

- EYC, 기독교청년회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사당동 판자촌 강제 철거사건 진상 보고서-」, 1981.12.10.
- 미상, 「사당동 사례 분석」, 1981.11.10.
- 정동익, 『도시빈민연구』, 아침, 1985.

제6장 1983년-86년

1. 목동 공영개발사업

1) 지역 개요

1983년 4월12일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영화 방식”, “서민의 주택을 대량으로 싼 값에 공급”이라는 기치하에 목동 신시가지 조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 달이 못 가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목동은 투기의 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서울시는 채권 입찰제 채택, 호화고층 아파트 건설로 계획을 바꾸더니 주민들의 토지를 평당 7-14만원에 강제 매입하고 분양가를 평당 105-134만원으로 책정하여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겼다. 이에 맞서 목동 주민들은 84년 8월27일의 양화교 점거농성을 시발로 하여, 85년 3월20일 언론의 대대적 왜곡 보도하에 폭도로 매도당하면서 전투경찰의 잔인한 진압과 대량 구속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크고 작은 시위를 계속하게 되었다.

○ 투쟁의 방법 : 경인고속도로 차단 시위, 공사저지투쟁, 시청앞 시위, 민한당사 농성, 현장열병합 발전소 공사현장 점거와 방화, 바리케이트, 투석전, 자녀 등교 거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 투쟁의 지속성 : 1백여회

○ 투쟁의 기본 전술 : 대규모 군중집회, 가두시위, 농성을 결합하는 형태

○ 투쟁 목표의 현실화 : ‘적정 보상, 아파트 입주권 부여’(가옥주), ‘임대아파트 보장’(세입자)

○ 투쟁을 위한 조직 구성 : 지역방어를 위한 철야경비조, 지역대기조 편성과 회장, 부회장, 총무, 각 통·반 조직책의 기본조직을 통해 지도력을 갖추었다.

○ 투쟁의 한계 : ① 경제적 요구에 집중 ② 투쟁과정에서의 지속성, 조직성은 투쟁이 마무리된 이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주체들이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목동 철거 투쟁의 특징:

1) 규모에 있어서 5,200세대 3만2천명의 대규모 주민이 거주하였다.

2) 지역 주민의 다수가 철거 경험이 있었다.

3) 공영개발을 앞세운 토지 할값 매입, 분양가 차익 취득 등 각 과정에서 서울시가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4) 선거를 앞둔 기간 동안 대민유화정책이 이 투쟁을 장기간 끌게 하였다. 그리고 지도부가 무능력할 때 곧바로 교체할 수 있었던 주민들의 민주적 능력도 큰 몫을 하였다.

5) 주민들 스스로가 당국과 직접 교섭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즉,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의 대부분의 투쟁기간 동안 주민들의 민주적 토론이 활발했다.

2) 일지

1983년

.4.12 : 서울시가 신정-목동에 신시가지 14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토지공영개발방식을 처음으로 시도. 9천억원 투입. 1986년 완공 예정에 인구 10-12만명 수용 계획.

.4.29 : 분양-임대아파트의 비율을 2:1로 하며 토지를 매입한 다음 선분양 후건설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

.5.12 :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 세부계획 확정됨.

.5월 : 김수환 추기경에게 진정서 제출. 1) 선입주 후철거 2) 주민실정에 맞는 임대아파트 건설 3) 현재의 연고지에서 계속거주를 요망.

.6.10 : 각계 인사들에게 목1동 추진위원 일동으로 진정서 제출. 1) 입주권 절대보장 2) 선입주 후 철거 3) 건물보상 - 이주비 현실화 지급 4) 세입자의 최대한 구제.

1984년

연초 : 지역주민 및 천주교 신자대표 일동으로 '신시가지 대책에 따르는 요망' 발표. 1) 선입주 후 철거 2) 건물보상-이주비 현실화 지급 3) 15평 임대아파트 건립 4) 유허가 건물도 입주권 보장 5) 사유지 무허가 건물 입주권 보장 6) 세입자 대책강구를 요망.

.6.21 : 주민들이 오후 2시에 부시장 면담.

.8.15 : 통-반장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철거대책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

.8.21 : 철거대책추진위가 구청장을 면담한 결과 세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음.

.8.26 : 추진위원회 회장단이 구청장을 면담하다가 경찰에 연행됨.

주민 300여명이 새벽2시까지 경찰서 앞에서 농성하여 회장단 풀려남.

.8.27 : 주민 1,000여명이 오후 4시까지 김포 진입로에 있는 양화교와 순환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임. 경찰은 이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고 100여 주민을 연행함. 그러자 다시 주민들이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으나 경찰에 의해 무차별 폭행, 해산당하고 다시 400여명 연행됨.

.10.17 : 오후 10시경 세입자 60여명이 목동천주교회에 집결하여 대책 논의.

.10.19 : 주민 200여명이 구청에 물려가 항의.

.10.21 : 세입자 대책위원회 개최. 회의 결과는 1) 국가이익, 시민생활에 저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15평이하의 장기저리 임대주택, 20평이하 장기저리 택지분양, 그리고 500만원 이하에 조건없이 장기저리용자 얻어낼 것을 목표로 정함.

.10.25 : 결의사항 정부에 제출.

.11.8 : 오전 8시 독방에 모의기로 함. 오전 11시경 약150여 주민이 모여서 세입자대책위원회의의 확답을 듣기 위해 사무실로 물려감. 주민 300여명이 대책위원회와 연행. 오후 12시쯤 주민 100여명이 경찰과 충돌하여 주민 한 명이 병원에 이송됨.

.11.9 : 주민 100여명이 목동천주교회에서 대책 논의후 호소문을 각계 인사들에게 배포.

.11.12 : 목동, 신정동 세입자 400여명이 강서구청에 가서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11.14 :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목교파출소에서 시위.

.11.15 : 오후 5시부터 구청에서 농성하던 대부분이 9시에 귀가하고, 30여명은 새벽4시까지 철야 농성.

.11.16 : 오후 4시 구청의 대화거부로 200여명이 구청마당에서 연좌 농성. 9시에는 구청에서 동네까지 가두 시위.

.11.17 : 400여명의 주민이 오목교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폭력으로 1명 부상.

.11.22 : 주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동네입구에 전경이 배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을 저지. 그리고 주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은 제정구씨 외 4명 연행. 오후 5시경 서울대, 연세대, 이대, 목동오거리 및 양평동에서 연합시위. 목동·신정동 세입자주민 일동의 이름으로 '셋방살이 어머니 호소'라는 유인물을 통해 1) "세입자 전원에게 임대아파트를 주세요" 2)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지 못하겠다면 정착지라도 주세요"라고 호소함.

.11.24 : 오후 2시 주민 200여명이 구청에서 직원과 충돌하여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이송.

.11.26 : 주민 100여명이 구청에서 총무국장과의 대담.

.12.4 : 새벽 4시부터 전경 1,000여명이 동네에 상주하여 예정되었던 민한당 당사 호소계획이 무산됨.

.12.6 :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에 진정서 제출.

.12.18 : 주민 500여명이 독방에 모임. 경인고속도로 4번 차단하고 23명이 연행됨.

.12.31 : 목동 가옥주, 세입자 일동의 이름으로 호소문 발표. 가옥주의 요구 - 현재의 잇가대로 보상. 750만원의 용자금과 무이자로 원금 30년에 걸친 상환 요구.
세입자의 요구 - 현재의 전월세금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분양 요구.

1985년

- .1.21 : 가옥주 대표가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1.22 : 오전 11시 플라자 호텔 앞에서 주민 70-80여명이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경찰의 해산과정에서 주민들 다수 부상.
.1.23 : 150명의 가옥주 대표들이 서울시장을 면담하려다 저지하는 전경과 충돌. 38명 연행.
.1.24 : 세대위가 구청에서 부시장 면담. 가옥주 150명이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전경들에 의해 귀가지치 당함.
.1.26 : 가옥주 300여명이 시청앞 광장에서 농성중 187명 연행됨. 세대위측도 구청에 시장이 온다는 말을 듣고 500여명 집결했으나 150여명 연행.
2.3 : 김포공항의 김대중씨 귀환환영회에 세입자들이 유인물과 플래카드를 작성하여 들고 감.
2.9 : 가옥주 250여명이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앞에 모였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귀가 조치됨.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오후 3시경 목동개발사업소에 물려갔고 강서경찰서는 전경들을 동원하여 강제해산시킴.
2.11 : 오전 11시 주민들이 시청앞에 모이기로 했으나 모이자마자 강제 해산됨. 저녁 6시경 주민들이 또다시 경찰들과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신부 심미경씨 등 3명이 중상을 입음.
2.13 - 2.26 : 가옥주들이 신시가지내 유수지 확장공사를 막기 위하여 연일 50여명씩 철야를 하면서 공사를 저지함.
2.17 : 세입자 100여명이 고속도로 이북현장에 나가 공사중지 각서를 받아들음. 가옥주는 지역중심에 있는 유수지 확장공사를 막고, 세입자는 고속도로 이북지역의 공사를 막는 것에 합의.
2.23 : 세입자들이 지도부를 재편해서 새로운 회장에 정철호씨를 선임.
2.24 : 부회장단에 최순옥씨 등 3명 선출.
2.25 : 오전 11시 100여명이 모임. 30분후 300여명으로 늘어나 시위를 하던 도중 구청직원, 전경들과 충돌이 일어남. 열병합사무실을 부수고 주민 50여명이 40분간 고속도로 점거 농성. 정용남, 박찬용씨 등 주민 4명이 크게 다치고, 처음으로 이종훈, 유영우씨가 구속당함.
2.26 : 이종훈씨의 아내 최순옥씨가 호소문을 작성, 배포.
3.1 : 세대위가 여의도에 가서 '서울 시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호소문 뿌림. 전경차 20여대가 동네에 상주.
3.3 : 40여명의 주민. 파출소 앞에서 철야 농성.

- .3.6 : 오후 2시경 250명의 주민이 개발사무실에서 농성.
.3.8 : 세대위 산하 구속자 석방 특별위원회 구성.
.3.9 : 구속자대책특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제출. 세대위에서 결의문 채택.
.3.12 : 오전 9시부터 오목교 부근에서 주민 700여명과 전경이 대치하여 이 일대 교통이 오후 3시까지 마비됨.
.3.14 : 세대위에서 단식 투쟁을 결의.
.3.17 : '목동철거민은 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세입자들이 배포.
.3.19 : 오전 10시경 주민 80여명이 17일 발표된 '세입자 대책 4개안'의 설명을 부구청장에게 듣고서 질의하였고, 부구청장 동의하에 동네로 가서 오후 8시경부터 또다시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음. 이 때문에 부구청장 외 2명을 다음날 새벽에 보내줌. 이 사건으로 7명 구속됨.
.3.20 : 강서경찰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연행하려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 400여명이 집결. 한편 최여수, 최순옥씨가 서울대에서 열린 '비상 학생총회'에 참석하여 목동의 상황을 호소하였고, 오후 6시경부터 서울대생들이 오목4거리에서 시위. 시위를 해산시키려고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면서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 이날 시위로 17명이 연행됨.
.3.21 : 정보과 형사들과 무술경관이 투입되어 가옥주들만 연행.
.3.22 : 경찰병력 600-1,000명이 상주
.3.25 : 위원장 권용하씨 등 가옥주 8명이 구속되고, 경찰의 탄압 책동으로 많은 이들이 떠나고 50-60여 가구만 남음.⁶⁾

3) 관련 자료

- 서울특별시, 목동 신시가지 건설, 1983.7.14
- 서울특별시, 목동 신시가지 개발사업개요, 1983.12.9.
- 목동 일지(1983.4.12 - 1985.3.12)
- 재개발지역 실태 조사서(목동, 신정동), 목동 관련(1983.4.12-)
- 선입주 후철거등 요구(유인물)
-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목동사건 진상보고서」, 1984

6)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주민사회분과위원회, 「목동 공영개발과 주민운동사건의 전모」(도시주민자료Ⅲ집), 1985.4.

제2부 철거민이 본 철거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주민사회분과위원회, 「도시빈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도시빈민지역의 형성과 최근 주거지 철거의 실상을 중심으로-(도시빈민자료집 I), 1984.

● 목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일동, 목1동 세입자 대책에 따른 건의, 1985.2.

본문 내용중 세입자의 희망(요구)사항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동 세입자가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집단 이주지를 주선하여 줄 것.

나. 집단 이주를 희망치 않은 세입자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이주비 보조를 하여 줄 것.

다. 임대아파트(13-15평)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입주금을 장기 불입제로 하여 입주케 할 것.

라. 세입자 중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철거 30일 전에 원하는 주택을 분양하여 줄 것.

마. 지방이주희망자는 즉시 이주시켜 줄 것.

● 서강대학교 총준위 목동철거 진상조사위원회, 다시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목동 철거의 진상을 밝힌다, 1985.3.27.

● 목동평가(85. 봄)

● 민주화운동청년연합-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주민사회선교위원회, 살 땅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신정·목동 철거문제 자료모음)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주민사회분과위원회, 「목동 공영개발과 주민운동사건의 전모」(도시주민자료III집), 1985.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재개발에 대한 간담회(목동을 중심으로), 1985.4.27.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정책협의회-목동사건을 중심으로-」, 1985.7.9.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도시빈민의 이해와 학생빈민지역활동」, 1985.7.

● 목동에서 배운다(유인물)

● 「나뭇잎 사람들」, 도서출판 공동체, 1985.

● 미상, 한국의 도시빈민운동의 현황, 1985.

● 목동 주민 일동, 목동에서 온 편지, 1985.

● 이득연, 「도시개발 지역 철거민운동의 전개 양상-목동 사례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미상, 가난한 자의 교회를 위하여, 1986.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주민분과위원회, 목동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1986.8.30.

● 목동투쟁의 빛과 그 그림자들

● 목동지구 개발 사업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분양 계획

● 목1동 철거주민의 요구 사항

● 천주교도시빈민연구소, 「지역운동-복음자리를 중심으로」

●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지역활동과 여성」

● 윤의영,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른 집단이주민의 재정착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 미상, 도시빈민운동의 흐름과 과제, 1987.8.13.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회, 「도시빈민과 도시재개발」, 1987.

● 미상, 도시빈민운동과 함께, 1988.9.

● 이현주, 「도시재개발지역 사회행동에 관한 비교사례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 기독교빈민선교협의회, 「도시빈민 선교의 현황과 과제」, 1990.

●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산불(90년 동계 빈활자료집), 1990.

■ 유인물 및 기타

● 안광훈 신부 외 6명, 주님의 평화, 1983.5(김수환 추기경에게 목동철거를 알리는 목동 천주교회 신부들의 친필편지).

● 구속사건 이후 특별일지

●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께 삼가 올립니다, 1983.5.

● 목동 천주교회 신자, 1984.8.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다시 어디로 가야 하나?, 1984.11.

● 호소문(목동): 셋방살이 어머니 호소, 1984.11.22.

● 호소문(목동):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 한국 기독교학생회 총연맹, 도시서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1984.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주민사회분과위원회, 다시 어디로 가야 하나?, 1984.

● 목동 주민 일동, 목1동 주민은 울고 있다, 1985.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반민중적 군사독재정권은 물러가라, 1985.1.25.

- 목동-신정동 주민일동, 대통령 각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1985.2.22.
- 호소문 : 저희 남편을 감옥으로 가지않게 해주세요, 1985.2.26.
- 목동세입자대책위원회, 진상보고서, 1985.3.1.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목동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폭력경찰을 처벌하라, 1985.3.14.
- 목동 철거민 세입자 일동, 목동 철거민 세입자 요구사항, 1985.3.16.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신정·목동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폭력탄압을 일삼는 현 군사정권을 규탄한다 1985.3.27.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목동주민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며, 1985.3.29.
 -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성명서 : 지난 3월18일 이후의 목동 사태에 대하여, 1985.4.
 - “도시재개발에 대한 간담회” 참가자 일동, 도시재개발에 대한 간담회를 마치며, 1985.4.27.
 - 강서구 목1동-신정2동 지역주민 대표 일동, 신시가지 대책에 따른 요망, 상동
 - 호소문 : 길거리에 내쫓기어 오갈곳 없는...
 - 박찬용, 고소장, 1985(박찬용씨가 강서 경찰서 형사를 고소한 고소장으로서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다).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철거지역 세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1986.
 - 목동 철거주민 정철호, 호소문 : 철거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1986.6.
 - 호소문, 철거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1986.8.
- 기사 및 소식지
 - 서울목동아파트 만가구 내년 4월 분양(중앙 83.12.9).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중생활소식(제4호, 85.1.7).
 - 목동주민 40여명 신민당사서 농성(동아 85.3.15).
 - 목동철거민 150여명 사흘째 철야농성(중앙 85.3.16) / 목동주민 40여명 신민당사서 농성(조선 85.3.16).
 - 목동철거 「세든사람」 대책 확정 / 목동주민30명 5일째 농성 계속(동아 85.3.18).
 - 공영민원-목동의 경우(한국 85.3.19) / 목동 「세입자지원책」 확정(조선 85.3.19) / 목동

- 「세입주자」 보상책 마련(한국 85.3.19).
 - 목동주민 부구청장 연금 16시간: 도시재개발의 악순환-폭력에 이른 서울의 목동사태를 걱정한다-(동아 85.3.20) / 부구청장 16시간 연금(매경 85.3.20).
 - 목동 매립현장사무소 방화(조선 85.3.21) / 「목동사태」 무엇이 문제인가(한국 85.3.21) / 「목동」 유감(조선, 85.3.21) / 오늘새벽 경찰투입(한국 85.3.21) / 「요구」·「양보」 줄다리기 7개월(조선 85.3.21) / 목동주민 부구청장 연금 농성이어(매경 85.3.21) / 목동시위 대학생 합세로 과열: 증후 아닌 근본의 해결(중앙 85.3.21) / 신정·목동 주민 경찰과 충돌(동아 85.3.21).
 - 일단 평은 되찾아: 시위주민 등 18명 연행, 주동자 8명 구속방침(한국 85.3.22) / 민원 관련 집단행동 중단(조선 85.3.22).
 - 목동천주교회 사회복지분과회보(85.7).

호소문 옥동 철거민 세입자

저희 남편은 감옥으로 가지 않게 해주셔요
부끄러울 무릅쓰고 호소 글수밖에 없는 막대한 사랑을 돌려보내주세요
옥동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철거가 되어 천막을 치고 어쩔 새 자비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희 남편은 다른 철거민들과 함께 부양한 철거 정책이 항의하러간다고
옥동 개발 구안으로 갔다가 경찰서로 잡혀 갔습니다
철거가 되어 천막에 살면서도 저희 남편은 아이들에게 늘 축하제
같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아파트를 지어 주고 돈을 방출해
매일 떠돌아다니는 실업 옥동 사람들은 모두 길거리로 쫓아내려고
망장파 하는 세력방식은 양심에 있는 사람이나
무익한 제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은 돈주들도 하지 않았고 돈을 죄론인들도 없는 그저

성실하게 살던 남편입니다.
동방은 우리 못박 방정 쪽부터 꺼지 말라는 말처럼 길바닥에 내쫓겨진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경찰까지 동원하여 왜 때리고 잡아 가둔
말입니다. 천막민들은 때리고 짓밟는 경찰들, 망장파 하는 시형당국
구형 당국 그리고 옥동 사탄 주인들의 흉포도 무슨 법이 이 나라에는

없습니까 죄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과 고생시키는 것이
이러한 법이란 말입니까 제발 저희 남편은 돌려보내 주셔요
취직은 망희에 지어준 천막에서 저희 어쩔 새 자비가
아빠를 기어리면서 보려고 있습니다 오빠 추위에 저희 둘째
아이가 밖에 동상이 걸려 고름이 나오고 풍등 부어 있습니다

아 우리 가난하게 길바닥에 내쫓겨서 살고 있는
처지 있지만 축하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저희 우리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하루 우리 저희 애기 아빠를 가원으로 보내 주셔요
1985 2월 26일 이종훈 4세
장서구 부1동 12동3반 409-3호

대통령 귀하께 쓰기 의뢰합니다.

국가 안녕하십니까?
부실하기 극점에 도달하는 국가에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바쁘시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미천한 주민들의 호소문을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이 아니오마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옥동, 신정동 신 시가지 개발 계획으로 인한 철거 문제입니다. 당초 정부 예산은 옥동, 신정동을 신 시가지로 개발한다고 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옥동 주민들 예산은 서민형 대규모 강기 저리 임대 아파트 단지류 조성해 수용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신 시가지 시공시 "부동산 투기판" "장사숙" 등의 기사가 실리고 모 국회의원은 이 지역에서 시공시가 벌어 들이는 액수가 1조원이나 된다고 방송 하더니 결국 예산의 대책이 없는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형 임대 아파트는 건물이 없고 대규모 호화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부 주민은 벤트속으로 몰아 넣은 채 철거가 시작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국민을 손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대통령 귀하께서 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신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부실한 전사라는 것을 세심한은 어떤아마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귀하께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옥동, 신정동이 개발된다면 이곳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광해 되고 이곳에 살고 있던 우리들은 이곳을 쫓거나 또 다른 무리가 건물이나 전세집을 찾아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왜 이 추운 겨울 동안을 벤트속에서 지내야 한니까. 춥고 있는 차 베타권 양에서 집을 짓고 이제 추 삼만하니까, 땅이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이 가치있는 땅이 너희들 손에 그날들 수 있지, 콩보기 싫으니 팔아버려! 이런식이 아니고 베타권 말입니다.

전대로 그 땅 수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서 철거된 철거민들에게 여기서 살아도 좋다고 허락해 줄 때인데도 되고 그 기산정도 아닙니다. 각종 세금도 다내면서 살아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재산권은 마땅히 인정 되어야 합니다. 저희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공세 등 주민으로써 국민으로써 나아한 세고운 다 내고 살아 왔습니다. 저기하는 법 다 지켰고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갖지 못하고 내몰려야만 하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무슨 권입니까 입주권을 얻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전세 집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입자들 역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 나가 죽어 단 말입니다. 어찌해 볼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못나갑니다.

국회: 남은 돈밖에 가지고 이계획에서 의지를 부어내고 감수 하십시오 고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누구 보다는 가장 어려운 주민일에서 살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만큼대로 되지 않았을입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지식은 가가 사회에 떠돌아 다니는 가정을 도우고 있지만 우리는 최저임 가난을 벗어날 수 가 있었을입니다. 저희들은 광역 어떻게 생각 합니다. 가난도 부도 모두 사회가 만들어 내었다고 그래서 가난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많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러한 관에서도 지금 진행중인 신 시가지 개발계획은 다시 고쳐야 할 줄로 압니다.

국회: 지금 옥동 예산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거한 지역에 오갈데 없는 주민들이 그 추운 동지 설날에 천막을 치고 살다가 연탄가스도 인하여 죽은 사례까지 벌어졌으며 매일 데오 아닌 데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짓길래 어떤 사망님은 호떡 사우나 땅에서 피호를 들고 있을 때고 그 추운 겨울 천막속에서 한 괴롭힘 생명에 죽어 가만 하니까 그분만이 아닙니다. 망장 갈곳이 없으니까 무덤 새우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경에도 수십번을 찾아가고 시형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또한 사정없이 물어 보라고 말할 수 있지 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같은 수도와 구마 심지어 머리가 핑거 얼굴이 피 부실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 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살아 보겠다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니까 정의사회 구현이 이런 건니까 힘있고 가난하고 그때도 생명이라고 살아 보려고 바둥대는 우리들을

근로자로 짓밟고 부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호화 아파트를 짓고 그 돈으로 공원 만드는 것이 정의사회란 말입니까

제2부 철거민이 본 철거

관: 도시 재개발이 언제까지 걸리든 이런 건이 일단 만년니까?
국가: 저희들은 삼척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우주와 색안주하고 많은 보금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학부중의 이런 노동에 시간이라 불어와 비록 생활상이 이기만 기쁘게 되도 많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 자리입니다. 누구도 이 보금자리를 그거 빼앗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 귀하!
국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건이 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책임을 다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이기에 당연히 생존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과 같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주거가 보장되는 개발을 원하며 민주권은 당연히 자국이 있습니다

1. 가옥주 매개 신시가 시내 아파트 매 주상 입주 매개 하여주십시오.
2. 새인차 매개 광기지의 아파트 매 입주 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저희들은 그동안 구정당이나 비정당 부시당인 과의 연과 그리고 이 지역 구회 의원들을 까지 연과하였으나, 법, 신용단 당단을 주들었기에 마지막에도 대통령 구정당 이 구를 운영합니다.
여까지 마르신 임금이 계시겠지만 구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 국민의 소리를 듣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을 구회에서 받아 보시지 못하시거나 받아 보신후 임수임 이내로 구회의 책임은 대단이나 관적부처에 지시각 신은 영 보도되지 않을 때에 저희들은 대통령 귀하와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며 저희 스스로 이 나라의 국민임을 포기한 채,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권리가오니 부디 저희들을 생각하시어 저희들의 생존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5년 2월 22일
북동, 신림동 지역 주민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목동 건물은 우리 주민의 재산이며 분명한 사유 재산 인것입니다. 특히 수용령을 발령하여 강제로 빼앗기고 우리 건물을 감정가 보상금이 라는 미명아래 호당 약 150만원 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가옥을 강제 빼앗는 것입니다. 단돈 1천원 을 빼앗는것은 강도이고 우리 재산인 가옥을 빼앗는 것은 정이 사회 구현인가요 정부는 목동에 투기를 하고 강제로 사유 재산을 빼앗아 1조 4천 여 억원씩 이 위를 얻는 개발을 도려 하는것입니까?
불쌍한 우리 주민은 살고 우리에게 주거 보장 대책 없이 호로 화관 신시가지 건설 하며 서울시가 북부민 되는것이래 5공화국이 북리 국가 건설인가요
정리인이 해호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는가요
우리 주민은 가옥을 빼앗기고 구두발로 깃밟고 곧봉으로 후려치고 정찰사로 끌려가고 구두발에 밟여 임신부가 유산까지 뺏겨 정찰사로 끌려가 감옥에 처넣는식으로 폭력을 휘둘러대는 처사는 과연 제 5공화국이 말하는 민주 국가 정이 사회 북리 국가 건설인가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면 김대중, 김영삼 해금 이전에 우리 목동 주민에게 주거 보장 대책 부러 세워야 할것입니다

창경원에 등불도 짚을마련 하는데 우리주민은 창경원 원승이 반드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같이것도 아는것도없는 불쌍 하고 가난한 주민들입니다. 늙으신 부모님과 어린자식을 이끌고 길거리로 헤매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대응할것을 아쉽 하고 호소합니다

목 1 등 주민의 요구사항

- 목 1 등 주민의 주거보장 대책없는 신시가지 개발을 전면수정하라
- 서울시는 목등 투기로 얻는 이익금을 지역 주민에게 전액 환원하라
- 선주거 보장 대책 후 공사일 분양하라
- 계획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곤봉과 구두발로 짓밟는 목적 즉각 중단하라
- 배어맛기고 짓밟고 감옥에 잡아가고 주거 보장없는 개발을 진행하면 목숨을 걸고 항거할것이다. 85.3.8 주민대표 : 권희유 이

목 1 등 철거 대책위원회

탄 원 서

선진조국 창조와 민족중흥의 찬란한 위업을 달성코자 불철주야 국사에 여념하옵신 께 이와같은 장문의 탄원을 재차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되며 아울러 아래와 같이 목등 신정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철거에 대하여 호소문을 올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서기 1964년 윤치영 서울 시장님의 재직당시 용산구 후암동 영등포구 대방동, 서대문구, 대천동등 철거민들로서 시에서 이곳 황무지인 허허벌판에 정착지로 지정하여 당시 1가구에 8명씩 균등하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루핑 천막이나 움막등을 지었으며 당시에는 생계마저 막연하여 이루말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사료가 격려하며, 영등포동지의 공장, 건축노동, 리어카 행상등 주로 노동에 종사하여 허리머를 졸라매고 루핑이나 움막에서 주간에는 생계에 종사, 야간에는 흙벽돌을 찍어 한단계 한단계 쌓아올려 하꼬방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우리 주민들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노력하면 노력의 댓가가 온다는 신념하에 남편은 밖에서 아내를 논, 밭 또는 공장, 행상, 공장 생산품의 가공등을 하여 쉬는날이 없이 노력하여 한푼 두푼 모아 비만 오면 방안이 새는 바람에 짱통을 여기저기 받치는 불량주택을 지금의 어엿한 기와집으로 개조하였으며 여름만 되면 홍수에 물난리로 주민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있었으나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학수 고대하던후 신정 배수 펌프장이 생겨 물난리에 의한 걱정은 해결이 되었고 비만오면 장화없이도 다닐수 없는 흙탕길의 골목길을 보도블럭을 깔아 깨끗한 골목이 되었습니다.

이주 당시 20대의 대다수가 이제 40~50대의 중년이 되어 직장파 노동 상업등 여러직에 종사하여 열심히 조국발전의 역군으로서 일하던중 지난 4월 12일 보도에 목등, 신정동 지역에 신시가지를 건립한다는 내용과 개발과 동시에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한다는 보도에 접하였을때 저희 주민들은 흥분과 착잡한 심정으로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 이라더니 이 발표가 있고 얼마 있지 않아 이곳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타지역에 이주 시킨다는 소문에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하여 불안과 초조속에 일손을 놓다시피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삼가 아뢰옵니다.

각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정에 시달리시는 각하께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옵니다. 바쁘시지만 잠시 짬을 내시어 이 미천한 주민들의 호소를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철거문제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목동, 신정동을 신시가지로 개발한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영세주민들에게는 서민형 대규모 장기저리 임대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신문에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꾼" "장삿속" 등의 기사가 실리고 또 국회의원은 이 계획에서 서울시가 벌어들이는 액수가 1조원이나 된다고 발언하더니 결국 생존의 대책이 없는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형 임대아파트는 간 곳이 없고 대규모 호화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부 주민은 텐트속으로 몰아 넣은채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어쩔 이렇게 국민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대통령 각하께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신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각하, 지역개발이라 함은 마땅히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목동, 신정동이 개발된다면 이곳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살게 되고 이곳에 살고있던 우리들은 이곳을 쫓겨나 또 다른 무허가 건물이나 전세집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우리가 왜 이추운 겨울동안을 텐트속에서 지내야 합니까.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에와서 집을 짓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땅이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이 가치있는 땅에 너희들살게 그냥 둘 수 없지, 팔보기 싫으니 빨리 꺼져버려, 이런식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지역은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서 철거된 철거민들에게 여기서 살아도 좋다고 허락해준 땅이리는데 그리고 그저 산것도 아닙니다. 각종 세금을 다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재산권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주민세, 재산세, 오물세 등 주민으로써 국민으로써 내야할 세금은 다내고 살아왔습니다. 지키라는 법 다 지켰고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고 내쫓겨야만 합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무슨 말입니까 입주권을 얻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더욱이 이 지역 주민중 많은 사람들이 전세 월세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입자들에게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 나가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쫓겨 날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못나갑니다.

각하, 남은 돈벌때 뭐하고 이제와서 억지를 부리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작업장에서 잘살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읍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 자식놈까지 사회에 뛰어들어 가정을 도우고 있지만 우리는 좀처럼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도 부모 모두가 사회가 만들어 내었다고. 그래서 가난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많이 이야기 해 왔읍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지금 진행중인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다시 고려해야 할 줄로 압니다.

각하, 지금 목동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치고 있습니다. 철거한 지역에 오갈때 없는 주민들이 그 추운 동지선달에 천막을 치고 살다가 연탄가스로 인하여 죽은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매일 데모아닌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짓길래 어떤 사장님은 호텔 싸우나탕에서 피로를 풀고 있을때 그 추운 겨울 천막속에서 한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야만 합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갈곳이 없으니까 목동에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수십번 찾아가고 시청에도 갔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아 이 딱한 사정좀 들어보라고 어쩔 수 없이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갖은 수모와 구타 심지어 머리가 찢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읍니까 살아 보겠다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의사회 구현이 이런 겁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생명이라고 살아불려고 바둥대는 우리들을 군화발로 짓발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호화 아파트를 짓고 그 돈으로 공원만드는 것이 정의사회란 말입니까?

각하께서 제시하신 21세기 청사진도 이런 것이었던 말입니까?

각하! 저희들을 살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옥주와 세입주가 교대로 꼬박 밤을 지세우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 들어와 비록 셋방살이이지만 지친 몸 피로를 푸는 우리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누구도 이 보금자리를 그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나라의 주권국민이기에 당연히 생존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1. 가옥주에게 아파트를 원가로 분양해 주십시오.
2. 세입자에게 장기 저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의 면담과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 원님들 까지 면담하였으나 별로 신중한 대답을 못들었기에 마지막으로 대통령 각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이 제시됐지만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하!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야 합니다. 만약 이글을 각하께서 받아보시지 못하거나 받아보신 후 일주일 이내에 각하의 책임있는 대답이나 관계부처에 지시가 신문에 보도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은 대통령 각하와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며 저희 스스로 이 나라의 국민임을 포기한 채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작정이오니 부디 저희들을 생각하시어 저희들의 뜻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985년 2월 22일

목동, 신정동 지역 주민

호 소 문

우리 목동주민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세요.

지난날 서울시의 부당한 철거정책에 항의하여 주민의 애타는 호소를 서슴치 않았던 가옥주 8명과 세입자 2명이 현재 폭력범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기소되어 한달 이상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자식들은 아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며 보채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울부짖던 아빠, 엄마는 지금 폭력범이란 죄명을 쓰고 검은 고무신에 푸른 죄수복을 입고 옥중에서 울고 있답니다. 왜 무엇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범법자가 입는 그 죄수복을 입고 파렴치한 무리속에 끼어 있어야 하나요. 지금 목동에는 강제 철거반을 동원시켜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수고 전경대를 동원시켜 형사들까지 합세하여 마구 집을 부수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주민들은 공포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한내에 자진철거를 안하면 모든것이 무효가 된다면 협박을 하는 바람에 목동을 떠나는 주민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래체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선입주 후철거는 어디로 갔는지 ...

주민들의 거센반발에 죄없는 주민들을 구속해 놓고 무조건 입만 잘못 열면 백명이라도 잡아 가둔다는 엄포가 과연 정의사회구현인가요? 부청장도 시인했던 주민과의 대화 자리가 신문방송에서는 부청장 연금사건으로 보도한것은 과연 그 누가 두려워서 그럴수밖에 없었던건지 ... 정작 목동주민의 억울한 속 사정은 일체없고 오로지 목동주민들은 욕심쟁이고 폭도라고 보도하여 목동을 완전히 고립시킨 매스컴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힘없고, 신량한 목동주민은 이 억울한 속사정을 긴 한숨소리와 함께 한맺힌 신세한탄만 하는 실정이랍니다. 지금 목동 특방에는 아예 전경막사를 10여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구호를 외치며 동네길을 휩쓸고 다니고 있어 그렇게 살기좋은 우리의 특방동네는 살벌하기 이를때가 없답니다.

지금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던 집이 헐리고 있는 실정에 목동주민의 생존권은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었던 입주권(권리증: 평당 105만원씩 내고 들어가됩니다)은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고 현주민의 이사할 수 있는 기한은 무시한채 일방적인 서울시의 철거계획을 통보하여 유수지 확장공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무조건 기한내에 집을 헐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며 기한이 지나는 다음날에는 여지없이 포크레인과 무쇠망치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강제철거반을 동원하여 기둥을 뽑고 지붕이 무너져 내릴때 입술을 짝물

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다 결국은 정신을 잃어 쓰러져간 주민의 뼈아픈 상처는 그누구에게 호소를 해야만 합니까?

지역개발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이라면 근본적인 정착주민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국민의 여론은 지식많은 똑똑하신 서울 시장은 들리지 않는지요? 더우기 정착주민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주었다는 건물 보상비와 입주권 마저도 4월 30일 까지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면 업포를 놓고 있는 현시점과 구속자를 미끼삼아 구속자 전원에게는 입주권도 줄 수 없다는 공고판을 크게 써 붙여놓고 주민들의 반발을 대비하는 현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요. 목동주민들이 왜 무엇때문에 자식같은 전경들의 군화발에 짓눌리며 최루탄 세례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입원하는 소동속에서 이토록 끈질긴 항거를 하며 굶기야는 집단시위사태까지 일어나야 했던 목동주민의 진정한 속사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주민들은 희생된 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될때까지 지금 이시간에도 단합된 결의로 뭉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목동주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구속자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주민들은 굳게 뭉쳐 그분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도 목동주민과 청년이 연행되어 붙잡혀 갔답니다. 그중에는 엄마는 형사에 연행되어 갔고, 아빠는 전경이 던진 최루탄이 머리에 맞아 정신이상을 일으켜 현재 병석에 누워있고 그것을 지켜보던 자식 철이는 울음을 터트리며 집을 뛰쳐나가 행방불명이 됐답니다. 이 한가정의 파탄, 분명 이것은 서울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철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85. 4. 18.

목 동 구 속 자 가 족 일 동

2. 양동

1) 지역 개요

양동은 1978년 정부가 양동 전지구를 도심 재개발 지구로 확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양동 4-5지구가 85년 10월에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IMF총회때 외국인을 위한 임시주차장과 대우복지관 건립을 위해 85년 4-5월에 철거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양동의 세입자들은 철거이후 대책의 막연함과 외국인의 임시주차장 때문에 철거되어야 한다는 부당성 때문에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82년 힐튼호텔을 짓기위해 철거 당했던 600여 세입자들이 30만원의 이주 보조비를 받았던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양동이 철거될 경우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한편 설마 대책없이 철거하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종찬 의원은 세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 보장, 정착지 마련 등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선거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민정당과 서울시는 목동세입자들의 계속적인 항의와 양동세입자들의 끈질긴 답변 요구에 85년 3월18일 세입자 대책 4개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종찬 의원 역시 3월16일 지역에 직접 찾아와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노라고 공언하였지만 양동 세입자들처럼 매일 2,000원씩의 일세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즉, 서울시의 대책방안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첫째의 경우(임대아파트 방 한칸을 주는 소위 '딱지')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의 대책이 막막하며 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3백15만원의 보증금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의 경우(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이주비용지급)는 철거전 보상이 아니라 자진철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주민등록 이전 증명을 시당국에 제시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주비용 20-50만원으로 방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서울 어디에도 없다.

세번째(서울에서 전출하여 농촌에 가면 30만원의 정착금을 주고 농자금을 융자)의 경우에는 농촌에 가면 반드시 5년이상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기가 어려워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기에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주택단지를 자력으로 조성할 경우 자금융자알선)은 양동주민이 스스로 땅을 사

3. 신당동

1) 지역 개요

서울 중구 신당6동 57번지 일대는 공원용지와 사유지 및 사유지로 되어 있다. 신당동은 교통이 시내에 근접해 있어 주거지로는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집에 3-11 세대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생계수단은 노점상, 행상, 건축노무자, 영세가 공업체 공장 노동자, 파출부 등으로 대부분은 30-50만원의 보증금과 월세 3-5만원을 내며 어렵게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4월26일에 서울시 고시 제280호로 신당제1지구 주택개발재개발사업지구로 책정되어 그나마도 자신의 삶을 잃게 되었다.

신당동의 강제철거는 86년 10월31일에 발생하였다. 10월27일이 강제철거 예정일이었으나 별탈없이 지나가고 30일 세입자 대책위(위원장 최형승) 임원회의 중에 다음날 철거 소식이 전해졌다. 7시30분에 구청직원, 인부, 전경 등 약 1,500여명이 투입되어 계고장을 제시하고 계속 자진 철거를 종용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사전 통고도 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인부들이 포크레인 등을 앞세우고 강제철거에 돌입하여, 개인집의 살림을 강제로 끌어내고 집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많은 재산피해가 났다. 주민들 일부는 오물을 던지는 등 처절하게 저지하였으나 인부와 전경들에 의해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 와중에 많은 주민들이 다쳤는데 가옥주대책추진위 회장 고춘삼씨의 아들 교회남군(당시 한양대 1년)이 인부들에게 폭행당해 뇌파열을 당했다. 그리고 윤강철 어린이는 화장실에 빠져 한양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의 행방이 묘연하다. 한편 김어간씨와 이영식씨는 조합 사무실 2층 난간을 점거하고 강제철거반대와 생존권보장을 외치며 몸에 석유를 붓고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하였다. 그리고 이영식씨가 마지막으로 자식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요청을 거부하고 분신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두사람은 17시15분에 몸에 불을 붙이고 조합사무실에 뛰어 들어갔다. 경찰들이 급히 소화기를 두사람의 몸에 뿌리고, 두사람을 연행했으며, 화상 정도가 심한 김어간씨는 병원에 호송되었다.⁸⁾

또한 12월2일에는 철거반원들이 구청직원과 함께 비닐천막에 살고 있는 최홍숙씨 댁에

8) 천주교도시빈민회, '신당6동 57번지일대 보고서', 1986.11.11

몰려가 비닐천막을 걷으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철거하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철거에 항의하려고 최홍숙씨가 목숨을 끊었다.⁹⁾

87년에 들어서도 이러한 강제철거의 행태는 변함이 없었다. 87년 9월1일부터 타지역과 동시에 신당동에도 강제철거가 또다시 행해졌다. 9월2일 아침 7시경 포크레인 1대와 철거반원 20여명이 술을 마시고, 1지구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철거반원들은 김호순(여, 23)씨의 바지를 찢고 끌고 다녔고, 이를 보다 못해 항의하는 장덕례(여, 64)씨를 폭행했다. 최오란(여, 59)씨는 골목길에서 철거반원들과 언쟁중 안전모로 안면과 흉부를 강타당하여 실신하였다. 더욱이 철거를 하기 위해 쌓아놓은 흙더미로 주민을 밀어넣고 생매장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철거반장 김석기는 펜티 바람으로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뛰어 들어가 모욕을 주며 희롱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출동하지 않았다. 답답한 주민들은 통일민주당에 연락을 취해 협력국 박두부씨 등이 나와서 조사를 하였는데, 철거반원들은 이틀마저도 구타를 했다. 나중에서야 출동한 경찰은 몇몇을 연행해 갔지만, 이들은 그날 밤에 곧바로 풀려 나왔다.¹⁰⁾

2) 관련 자료

- 신당6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실태조사, 1984.
- 천주교 도시 빈민회, 신당6동 57번지 일대 보고서, 1986.11.11.
- 도시빈민사목위원회, 제2회 현장 분과 회의 기록, 1987.9.2.
- 유인물 및 기타
 - 천주교 신당동 교회, 합동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1986.11.9.
 - 신당6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사람 죽이는 재개발 정책을 고발합니다, 1986.12.5.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6동 재개발지역 세입자 일동, 민주시민에게 드리는 신당동 주민의 호소문, 1986.12.27.
 -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포크레인에 짓밟힌 어린 동생의 삶에 분노하며 한양대 청년학생들이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 1986.

9) 자세한 내용은 제3부의 '철거관련 희생자 명단' 참고할 것

10) 도시빈민연구소, '철거반대투쟁 자료집', 1988.

- 신당동의 살인적 강제철거를 폭로한다 -

민주화를 갈망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6월 민주화 투쟁의 기세에 불린 이 정권은 노태우의 6.29선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말의 설찬에 지나지 않았고, 그 허구성과 기만성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29 이후 잠깐 잠잠하다가 이제 빈민현장에서 다스림 특약적 만행을 저지르는 저들의 악행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저의 신당동 재개발 지역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계속된 살인적 강제철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9월 2일 이른 아침 7시경 포크레인 1대를 앞세우고 재개발 조합측에서 30만원씩의 월급을 주고 고용한 전과자로 구성된 철거장패 20여명은 빈속에 술을 마시고 1지구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들 장패집단은 주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김효순(여 23세)씨의 바지를 찢고 반나체 상태에서 개 꼴듯이 끌고가면서 발로 차고 하였으며 이를 보다 못해 항의하는 장택래(여, 64세)씨를 무릎과 화이버로 가슴과 머리등을 내리쳐어 살신시켰습니다. 최오관(여, 59세)씨 같은 경우는 끝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장패들이 와서 나가라고 욕박지르자 '여기서 담배 한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하자 '이 씨꼴년의 늙은이가 나가라면 나가지 댜 잔말이야' 하면서 화이버로 안면과 흉부를 강타하여 피가 난 자한 상태에서 살신하였습니다. 더우기 철거를 하기 위해 쌓아놓은 흙더미로 주민을 구덩이에 처넣고 생매장 시켜 버리겠다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위협하고, 백주 대낮에 술을 만취한 철거반장 김석기(별명: 잠룡)는 팬스 바람으로 여자 혼자 있는 가정집으로 뛰어 들어가 모욕을 주며 희롱하였습니다.

우리 신당동 세입자들은 무서움에 떨며 견딜수가 없어 경찰에 요청을 했으나 그들은 출동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통일민주당에 연락을 위해 협력국 박두부씨와 인권국 이재갑씨 등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김석기, 김효식, 박재승등의 철거 장패들은 이들에게 조사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할서에서 출동한 경찰은 김석기와 박재승을 연행하여 갔으나 그날 밤으로 불구속 처리되어 풀려나와 더 욕기세가 동등하여 세입자들 모두 죽이겠다고 폭언을 쓰면서 길길 날뛰고 다닙니다. 더군다나 가소로운 일은 신당 6동제1 지구재개발 조합측에 고용된 장패 철거반 "김석기"의 3명이 세입자 대표위원회 박두부씨를 승용차까지 대기 시켜놓고 납치 하려고 하였다. 더우기 납치범들은 경찰서의 하명을 받은 것처럼 판명 사칭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화란 말인가요. 폐허의 터전위에 천막을 치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저의 세입자들은 무섭고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의 철거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신수법으로 나날이 연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온국민의 눈이 노사문제에만 쏠려 있는 이때 철거반, 경찰들은 완전히 합동작전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때 밀어버리자는 속셈이었지요. 지난 8월 29일부터 창신동, 사당동 등에서도 일시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깨부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주화는 강자와 약자의 약육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땅에 민주주의를 간절히 원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약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억눌리지 않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1. 빈민생존 암살하고 민주화가 쟁말이나!
- 1. 강제철거 자행하는 독재정권 타도하자!
- 1. 살인철거 앞잡이를 철거장패 몰아내자!

1987년 9월 일

신당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4. 방배동 488번지 꽃동네

1) 지역 개요

1차 철거는 1984년 3월15일 아침 10시30분경에 감행되었다. 철거 이틀전에 통고한다는 구청직원의 말에 속아 이날 아침 남자들이 직장에 나간 사이 꽃동네를 기습한 전경, 철거반, 임광토건 고용인들은 집들을 한 채씩 부수기 시작했다.

“빨갱이만도 못한 놈들”이라며 울분을 참지 못하던 주민들이 이날밤 비오는 폐허위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지만, 임광토건측은 어떠한 철거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주민들의 퇴거만을 요구한 것이다.

2) 관련 자료

- 미상, 방배동, 1984.10.21.
- 정동익, 『도시빈민연구』, 아침, 1985.

5. 방배2동 220번지

1) 지역 개요

1984년 8월15일, 방배2동 220번지 27세대가 강제철거를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경 60여명, 사복경관 20여명, 구청직원, 임광토건직원, 불량배 등 150여명이 동원되어 철거가 진행되었다. 이날 철거과정에서 한 남자주민이 분신을 기도했으며, 저항하던 아주머니가 실신, 가야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참상을 빚었다.

2) 관련 자료

- 정동익, 『도시빈민연구』, 아침, 1985.

6. 사당3동 산24번지

1) 지역 개요

사당 3동 산24번지는 1967년말부터 양동, 도동, 서부 이촌동 등의 철거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곳이다. 85년 3월말 현재의 세대별 통계를 살펴보면 가옥주가 약1,300세대, 세입자가 약1,100세대로 되어 있다. 산24번지는 전체가 국유지로서 건물주는 무허가 가옥주들이지만, 토지연고권으로 인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회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더구나 기업과 복부인의 투기로 인하여 가옥주 소유 입주권의 전매가격(소위 딱지값)이 2,5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지역 정착시 1가구당 8평씩 분할해 준 사실을 참고하면 평당가격이 약35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 당시 합동재개발법 하에서 세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재개발법 20조 3항에는 주택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완전히 지역의 주민으로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재개발사업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당 3동 세입자들은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목동투쟁이 85년 3월30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정부의 철거정책에 있어서도 공영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로 바뀌었다. 사당동 세대위는 목동 주민들의 투쟁에 고무되어 급속히 조직력을 확대시켜나갔다. 바자회 사업을 통한 자금 마련과 목동에서 처음 조직되었던 통책조직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갔으며, 지역신문 「산24번지」를 발행하여 주민 조직화·의식화의 매개로 활용했다.¹¹⁾

2) 일지

1985년

4.4 : 세입자대책위원회 구성.

5.28 : 소래읍 복음자리 방문. 목동주민들의 투쟁사례 듣고 간담회 가짐.

5-6월 : 각계에 진정서 발송.

11) 동작구 사당3동 산24번지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3동 산24번지 주민들의 외침」, 1985.

- .7.2 : 동작구청 앞에서 최초의 시위 벌임(80여명이 참가하여, 구청장 면담 요구).
- .8.8 : 세입자 임시대책위원회 발족(세대위 임원들의 갈등과 불신때문에 세대위를 해체시킴. 위원장 - 고명화, 총무 - 박성숙, 윤상현)
- .8.17-9.27 : 「산24번지」 소식지 발행(6호까지).
- .11.5 : 민정당 허청일의원 사무실 농성. 면담요청과 선거공약 준수 등을 외치다 결렬되자 농성을 시작하여, 밤 11시경 전경들에 의해 강제 해산됨.
- .11.8 : 서울시장과 지역대표 5명 면담.
- .11.11 : 주민 100여명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대기중이던 전경들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어 관악서로 연행. 취조중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으며, 주민 2명은 병원에 입원.
- .11.12 : 주민 30여명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려다 전경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석방되지 않자 경찰서 앞에서 주민 200여명이 시위. 결국 저녁 늦게서야 석방됨.
- .11.20 : 김수현군(당시 서울대 대학원생) 구속. 동회 앞에서 빈민생존 보장과 국회는 빈민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구속됨.
- .12.23 : 명동성당 앞에서 대책없는 철거반대와 구속된 김수현군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임.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 등 유인물을 늦게까지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김수현추기경과 면담을 가진 후, 새벽녘에 귀가함(주민 50여명 참가).
- .12.? : 대책없는 철거반대와 김수현 석방을 외치며 기독교회관 등지에서 시위.
- .12.29 : 3.24계 발기회(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위의 보조기구와 재정전담기구 필요성을 논의하여 3.24계 조직기로 결의).

1986년

- .1.13 : 「산24번지」 소식지 8호 발행.
- .1.27 : 김수현군 석방.
- .3.8 : 3.8여성대회 참석. 총무가 빈민대표 연사로 나섬.
- .4.6 : 3.24계 주최 야유회.
- .6.18 : 풍수해 대책법 사건(정부가 풍수해대책법을 적용하여 63세대의 가옥을 강제철거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시위로 무산).
- .10.28 : 주민총회와 단합대회.
- .11.8 : 3.24계 주최로 주민총회와 세대위 임원 선출. 위원장 - 박춘광, 부위원장 - 윤영자, 정순례, 총무 - 이길례, 교문 - 이효석.
- .12.8 : 신당동 추모제 참석(철거중에 비관 자살한 최홍숙씨 추모 미사).
- .12.27 : 상계동 구속자 공판에 참석.

- .12.31 : 유인물 '힘없는 사람은 힘에 밀려 살아야하는가?' 배포.

1987년

- .1.5 : 실태조사 실시.
- .1.11 : 양평동 단합대회에 참석.
- .1.13 : 오금동 방문.
- .1.19 : 오금동 단합대회에 참석.
- .1.22 : 주민모임. 주민 약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모임을 갖고, 통채선발 및 반모임 실시에 관한 토론회 가짐.
- .1.30 : 풍물놀이 실시.
- .2.7 : 박종철군 추도식에 참석.
- .2.8 : 세대위 현판식.
- .2.10 : 각 지역 회장단 초청하여 점심 만찬.
- .2.12 : 신당동 단합대회에 참석.
- .2.15 : 오금동 단합대회에 참석.
- .2.18 : 박종철군 추모미사에 참석.
- .2.19 : 암사동 단합대회에 참석.
- .2.22 : 천도빈 2차 총회에 참석. 연대위원회의 존립 여부와 운영문제 찬반토론. 그 후 회장단 회의에서 서울시 도시빈민 대책협의회의 명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뒷날 거론기로 미룸.
- .3.8 : 주민단합대회.
- .3.10 : 양평동 구속자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 .3.22 : 임시 임원모임과 위원장 교체. 위원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하여 이효석씨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박춘광씨가 교문으로 선출되었음.
- .3.29 : 도화동 단합대회.
- .4.5 : 창신동 단합대회.
- .4.5 : 양남동 단합대회.
- .4.8 : 양평동에서 연대모임.
- .4.12 : 복음자리 10주년 기념 이주 잔치.
- .4.14 : 상계동, 양평동 강제철거.
- .4.18 : 창신동 단합대회.
- .4.23 : 사당 3동에 사업시행이 승인됨.

- 4.30 : 철거민을 위한 기도회.
- 5.4-5 : 오동근군 사망과 시신탈취사건. 4일 사망한 오동근군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병원에서 약200여명이 교대로 밤샘을 하여 지켰으나 5일 새벽, 경찰에 의해 강제로 탈취 당함.
- 5.6 : 오동근군 추모 미사. 이날 노동자 나병남씨가 명동성당에서 투신자살 기도.
- 5.7 : 오동근군 시신탈취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독교회관에서 농성. 다음날 아침 9시경 자진 해산.
- 5.10 : 철거중 고인이 된 6인의 넋을 위한 합동위령제가 약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치뤄짐.
- 5.12 : 양평동 주민, 공판에 참석.
- 5.15 : 서울시에서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아파트 방 한칸 입주권이나 2개월분 생활비 지급한다고 공고.
- 5.24 : 창신동 단합대회 및 서울시에서 5월15일에 발표한 기만적 발표문에 항의 시위. 1, 2차 시위로 총 61명의 주민들이 연행됨.
- 5.26 : 24일 연행자중 38명은 훈방. 창신동 주민 2명은 구속됨.
- 6.10 : 민주헌법 쟁취대회 참석.
- 6.26 :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평화대행진에 참석.
- 7.9 : 이한열군 장례식.
- 7.14 : 민주당사 농성. 양평동이 주도하여 타지역 회장단들과 주민들도 합세하였음. 김충재 면담과 각 철거지역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 총재를 면담하고 조사단 구성도 약속을 받고 16일 농성 해제.
- 7.26 : 빈민대회 치름.
- 7.27 : 수재민 대책협의회 구성.
- 8.10 : 양심수 석방 및 민주화 쟁취대회 참석.
- 8.15 : 8.15기념 해방대회
- 10.13 : 철거반원 170여명, 가옥주 400여명, 포크레인 2대가 동원되어 철거가 시작됨. 이를 추영호 신부가 촬영하려 하자, 철거반원들이 추신부를 집단구타하고 카메라를 부숴. 이날 참석하지 않은 가옥주에게는 벌금 5만원씩 부과. 가옥주 1가구당 30만원을 들여 철거반원을 고용한 것임. 철거반 일당 13,000-25,000원.
- 10.14 : 여전히 전날과 같은 규모의 철거반원들이 동원됨. 이날 박태수, 신동복씨가 구타당하여 심하게 다쳤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주민도 가스통을 들고 철거를 저지하다 경찰에 연행됨.
- 10.16 : 임동렬 전 세대위 위원장 집에서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
- 10.17 : 주민들 허청일의원 사무실로 가서 허의원과 면담을 요구. 결국 관악구청장과 허의원과 저녁까지 회의를 했으나 결론은 나지 않음. 단식투쟁을 결의.

- 10.18 : 11월20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철거공고문이 붙여졌음(조합은 붙인 적이 없다고 함). 이에 대해 각 통별 회의, 그리고 대표자 회의가 열렸음.
- 10.19 : 주민 170여명이 동작구청 앞에서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 전경에 의해 6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다른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밤에 석방됨.
- 10.20 : 통회의와 통책회의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
- 10.21 : 박실의원 사무실에 회장단 파견. 가두시위가 예정되었으나 사전정보 누설로 실패, 그리고 유언비어가 횡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삼민투라는 학생과격 용공세력이 개입됨. 2) 주민지도부 중 핵심인자 4명이 경찰이나 추진위원회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음. 3) 복음자리라는 곳은 목동사건의 배후조정자로서 시위를 배후조정하고 있으며, 이곳은 삼민투위와 연결됨.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즉석에서 30여만원이 모임.
- 10.22 : 오후 2시경 주민대표 10여명이 구청에 찾아가서 대책을 요구했으나 신통한 말은 듣지 못함. 이날부터 핵심적인 아주머니들은 형사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몇몇 가옥주는 자진철거하여 5가구가 단수됨.
- 10.23 : 주민들이 세 패로 나뉘어 시청, 허청일의원 사무실, 박실의원 사무실 방문. 그러나 별 성과는 없었고, 밤에 다시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정책건의문을 내기로 함.
- 10.24 : 통책회의를 통해 향후의 진로 모색. 지도부가 돈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아 약간의 분열 양상.
- 10.26 :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주민들간 분열이 점점 심화됨.
- 10.27 :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유언비어가 또다시 나돌기 시작함.
- 10.28 : 박실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별 성과 없었음.
- 10.29 : 오전 10시경 주민 100여명이 시청에 가서 호소문을 배포하며, 시장면담-철거대책을 요구. 18명 연행.
- 10.30 : 주민들이 세 패로 나뉘어 사회선교협의회, 복음자리 등을 돌아다님. 저녁에 통책회의가 열렸으나 계속 물아서 부딪치자는 파와 내부정비를 선행하자는 파가 날카롭게 대립.
- 11.1 : 저녁에 주민 300여명, 형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사를 진행. 한편 남성시장 앞에서 서울대생 50여명이 시위.
- 11.2 : 주민들 약100여명 남성시장과 사당2동에서 시위.
- 11.4 : 주민들 동네 근처에서 시위.
- 11.5 : 오전 8시 철거반원 8백명과 가옥주 2백여명이 철거 감행. 이들에 의해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중앙일보 기자도 구타당함. 오후 8시에 세입자 사무실 앞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철거반원 텐트를 공격하기로 결의. 남자 150, 여자 300여명이 텐트를 공격하여 철거반원들을 몰아냄. 이때서야 경찰이 출동하여, 화가 난 주민들이 기동대차 박살냄. 이어 복덕방 40여개 완전

박살내고 파출소 농성. 이후 간선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수천의 시민들이 '동참.

.11.6 : 오전 10시 철거반원 600여명이 유혈극 시작. 주민은 남자 70여명, 여자 200여명이 대항. 그러나 철거반원은 동네를 완전히 포위하고 쇠파이프에 쇠꼬챙이를 꽂고, 각목에는 칼을 꽂아 난자함. 결국 주민들 후퇴. 집집마다 들이닥쳐 남자만 있으면 마구잡이 구타. 국민학생과 지나가던 행인까지 구타당함. 주민 40여명이 중경상 입음. 방창술 총무는 지휘하다가 잡혀 온몸을 구타당하고 겨우 피신. 철거반원들로부터 "구청장이 하루 거적매기 3개가 나와도 책임질테니 마음껏 해라."고 했다는 말을 들음. 주민 50여명 도로 점거하고, 울부짖으며 농성했으나 백골단이 출동해 해산시킴.

3) 관련 자료

- 희망교회, 사당3동 지역주민 실태 조사 설문, 1977.9.
- 동작구 사당3동 산24번지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3동 24번지 실태조사보고서, 1985.3.
- 사당제3동, 사당동 제2-3구역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1985.3.30.
- 사당3동세입자 대책위원회, 결과 보고서, 1985.7.2.
- 사당 3동 산24번지 세입자대책위원회, 「산24번지」, 1985.8-1986.1.
- 미상, 사당3동 세입자 설문조사 결과, 1985.9.
- 미상, 사당 3동 세입자 동작구청앞 농성시위사건 보고서, 1985.10.
-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의 소리」, 1987.10.22.
- 동작구 사당3동 산24번지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3동 산24번지 주민들의 외침, 1985.11.10.
- 사당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활동일지, 1985.11.
- 미상, 철거민 형제들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1987.11.10.
- 사당3동 세입자, 탄원서, 연도 미상.
- 정일우 신부, 관악경찰서장님께, 1985.11.22.
- 미상, 가난한 자의 교회를 위하여, 1986.
- 덕성여대, 「근맥 7호」-이 지구상 절반의 사람-. 1986.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회, 도시빈민과 도시재개발, 1987.
- 사당3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사당동 활동 일지, 1987.8.

- (사당 3동 세입자천막 고사) 보고서, 1987.9.12.
- 10.19 사당 3동 철거현장 부상자 명단, 1987.10.
- 우찬재, "물거품이 되고 만 <특별시민>에의 꿈", 『열린사회』(제1권), 열린책들, 1987.
- 사당3동, 1987.11.
- 사당3동 철거민과의 Interview.
- 기독교빈민선교협의회, 도시빈민선교의 현황과 과제, 1990.
-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산불」(90년 동계 빈활자료집), 1990.
-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지역활동과 여성」.

■ 유인물 및 기타

- 사당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동 재개발문제, 1985.10.16.
- 사당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허청일의원 사무실에 다녀와서, 1985.10.17.
- 許淸一의원 사무실 철거대상민 농성, 조선일보, 1985.10.18.
- 세입자임시대책기구, 보고문, 1985.10.20.
- 세입자임시대책기구 1052세대,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1985.11.8.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대책없는 철거정책 주민들은 분노한다!, 1985.11.
- 사당동세입자대책위원회, 정부 제벌 복부인만 살찌우는 철거 절대 반대!!, 1985.12.17.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빈민분과위원회, 빈민투쟁 속보10, 1987.6.
- 사당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동, 1987.7.18.
- 사당동 철거민부상자대책위원회, 피의 월요일 10월19일, 1987.10.
- 서울시철거민협의회-사당 3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맨 주먹 붉은 피로!!!, 1987.10.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1987.10.4.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빈민분과위원회, 군부독재 정권의 기만적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1987.10.16.
- 사당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동 세입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1987.10.20.
- 민주당 농성 참가자 일동, 우리는 왜 민주당에 왔는가?.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살인적 폭력이 춤추는 철거현장, 1987.11.21.
- 사당동 세입자 일동, 성명서-어린 생명 앗아가는 살인 재개발 즉각 중지하라!-, 1988.1.4.



은 국민이 관망하며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이때
 방앗없이 공주에 수려하는 고명리산 의
 노에 재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하여 재개발법 제4조제
 의거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동양구 사당 3동 산
 24번지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 24번지내의 세입자와 약 102세대는 배려의
 갖듯이 정은 재도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가난한 생활속에서도 이웃을 베풀어 비탄진
 언덕을 오르내리며 우리는 생활의 단점을 약으며
 안락은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나마의 생활권마저 뺏기가
 뺏긴 저희 세입자들은 무거운 생존의 기로에에서
 양말한 화는만 바라볼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한끼를 먹는다 해도 겨우
 서려지 뻔합니다.
 그러나 모박박이 일방적 여독하고 아늑한 배움과
 를 잃어버린 집없는 서러움보다 더한 서러움
 은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영세 세입자가 이들을 피할 재가 없으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가뭇기만한 우리끼로 또한 복된 것 기뻐하는
 운명 합니다.
 낙산화재로 되풀이되는 전거기의 운명도 이제
 는 전벽의 끝에 하다는지 밖았나 같습니다.
 뒤로 물러 섰수도 앞으로 나아갈수도 없는
 절박한 현실앞에 우리는 서있는 셈입니다.
 지음까지 참기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며 우리는 살아 왔습니다.
 앞으로 양쪽은 특히 영세 세입자 대책에 성의
 있는 노력을 마다없이 화기를 바라는 마음
 주는보다 더 높이 간절합니다.
 세입자의 꿈과 희망의 미래를 추구하게
 주는 대책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어려움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건설 촉진법이나
 재개발법 모두가 국민을 위한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산 24번지가 국유지라면 이 또한 국가 즉
 국민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유지를 점유한 무취 건물주나
 세입자 또한 법앞에 평등한 다같은 국민이
 라 합류 받을 것입니다.

공권복지 f2A4 평등 해제하여 산 24번지 예하
 보증자리는 마년하여 주지물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뚫드려 비는 바랍니다

1월 14일
 시당과 안원인 평안 1985. 6. 5

동작구 사당3동 산 24번지 시당과 대책 위원회
 대금 이 동

출	시	본
기	안	관
기	동	우
관	문	기
조	방	규
안	유	호
시	영	원
정	유	숙
간	정	규
기	근	은
기	이	현
유	호	자
의	정	화
회	정	호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당 3동 산 24번지에 살고 있는 1052 세대의
 세입자들입니다. 그동안 저희 영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철거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느라 같이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입에서 흘러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이
 정부 방침인 양 리플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옥주들의 위협 아닌 위협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버텨 온
 것은 오직 한 가닥 정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저희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답변하신 서울특별시 시장님의 말씀 역시 새마을로
 하여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해석을 내리는
 사람도 많기에 하늘이 저질 듯이 무뎠어 내리는 심정을
 의누를 수 없었습니다.

대책 없는 저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가옥주
 들만을 지칭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입자는 사람죽어도 못 느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영세
 세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이지요?

저희들 세입자의 대부분은 몇 십만원 보증금에 월 세
 2~3만원씩을 내며 막 노동이나 행정·파출부 등으로

SHIN II

하루 하루를 선명하는 영세민입니다.
평균 가족 수도 최하 5인 이상인 외자가 겨우 방 한 칸에서
은 몸을 오그리며 살아가는 세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직접 이곳을 찾아 오셔서 확인 해 보신다면
그 실제의 생활에 더 더욱 놀라시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재 개발이 된다는 주위의 광활 집값 집세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며 많은 부동산업체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무리가 건물주들이 대부분
집을 팔고 이주했으며 영세 세입자들은 주인 얼굴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세고 연탄 가스가 스며도 저희들 손으로 고치며 살았고
등도 보도 못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나타나서는 표박 표박
집세만 받아 갔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철약하기 이를 데
없는 말파 눈조리로 집을 비우라고 성화를 올리는 판입니다.

그런데도 가족 주나 가수용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
가는데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너무나 억울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항상 남을 위망하기에 앞서 자신이 못 배우고 못 사는 것만을
한탄하고 나무라실 저희들입니다. 재 개발 사업이 불량 주택
을 개량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란
걸 저희들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재 개발 구역안에

사는 저희같은 영세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사업처럼 원망
하게 되는 저희들의 실상을 진정 당국은 알고도 모른채 하는
건지, 모르고 계속된 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노동이나 행상 파출부등의 직업이 대부분인 저희들 이기에
10년도 넘게 닦아 온 이 타전을 떠나면 당장 살 길조차
막막한 실정입니다. 한 푼 두 푼 버는 벌이 이기에 더욱이
연금이 있는 가까이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말 못하는 동물도 해가 지면 제 굴을 찾아
가고 날 짐승도 찾아 갈 제 둥지가 있다는데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이 갈 집이 없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코 앞에 닦친 철거를 앞두고 매일 매일 불안과
한 속에서 못한 저희들 만들 탓하고 있자니 가슴에 맺힌
이 복바치는 설움과 한 맺힌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이 글
을 올리는 바입니다.

부디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곳의 실상을
직접 살피기 위해 살펴서 세입자의 대책에 남들 할 수
있는 방침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바라건대 재개발법 20조 3항과 42조 6항을
참조하시어 정든 산 24번지 안에 저희들 영세 세입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1052 세대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 사당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며 이 땅의 민주화와 참인간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당 3동 산 24번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배운것도 많지않고 가진 것은 더욱 없
 습니다. 뾰족하게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드물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
 대 속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 돈벌때 제대로 벌지 못한 죄로 산동네의 비탈을 오르내리며 살고 있지만 죄라고는 가난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정부지침에 의하여 산 24번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약 1052세대(3
 월말 현재)가 아무보상도 없이 정든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네이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
 있습니다.

70 몇년인가 잘 기억도 나지않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지역이 철거된다는 소리가 무성하였으나 호
 지부지된지도 수없이 많았고 워낙 여러가지의 소문이 떠도는지라 언제될지 확실히 알지도 못한채 10
 여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상계 등에서 과연까지 50분밖에 안걸린다는 지하철 4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언젠가 저 지
 하철이 완공되는 날 이 지역에서 정말로 떠나야 되는구나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년을 끌어오던 지하철 공사가 완공되기 시작한 85년이 되자 올해 안에 철거가 될것이다 하는 소
 문이 떠돌기 시작했고 지난 겨울 총선에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가릴것 없이 세입자에게는 물론
 지역주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재개발을 하겠다는 공약들이 튀어나오며 속는셈치고 찍어주지
 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 실제로 재개발을 위한 가옥주들의 모임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유아무야되던 철거얘기와는 다르게 가옥주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임원을 뽑고 점점마다
 빨간케이트로 번호가 매겨지는 것을 보며 저희 답답한 나날들을 보았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곧 여
 당국회의원(허청일의원)의 선거활동을 했던 사람이 나서서 세입자들도 그린벨트를 사서 집단으로 이
 주하면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모아 그린벨트를 사자는 주택조합을 구성하였습니
 다. 처음에는 집을 갖게되나보다 하며 모두 관심을 가졌으나 돈을 200백만원씩이나 내야된다는 말과 그
 린벨트를 사도 주택용지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주택조합은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못이지요. 주택용지로 바뀐다 한들 무슨 돈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주택용지로 바뀌
 면 그걸 팔아서 전세나하나 들어갈려는 욕심으로 다들 기웃거렸던 것이고 계속 그 생각에 여태 까지
 미련이 남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신문들 통하여 저희와 똑같은 목동의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우리도 세입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하는 생각으로 4월에세
 입자 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재개발인데세
 입자도 당연히 권리가 있지하고 시작한 저희들의 활동은 곧 엄청난 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목동
 은 공영개발이라 혜택이 있지만 사당동은 재개발이므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공영개발인줄 알고 이사왔으며 누구는 재개발인줄 알고 이사왔습니까? 10년전에 이사올때
 목동은 되고 사당동은 안되는 줄 알았으면 전부터 목동으로 갔지 뭐하러 여기에 왔겠습니까. 세살다
 집이 철거되거나 어디론가 가야하는 세입자 처지는 다 마찬가지이다. 사당동이 철거되는 이유도 지

하철이 생기고나서 철거되는 것이니 당연히 공영개발이지 이름이 재개발이라고 진짜 집주인들이 스
 스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옥주 회의에서는 한번도 몇월몇일날까지 뭐하고 몇월
 까지 철거한다는게 결정된 일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대립건설과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놓고 가옥주에게는 통보만 해주는 주제에 매일 찾아가면 가옥주와 알아서 해결하라느니, 세입자는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느니, 세입자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뭐냐느니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옥주에게
 물아붙이거나 책임회피만 해대니 정책당국자는 아무권한도 없는 허수아비거나 국민학교 시간에 배
 운 만인은 평등하다는 쉬운 말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볼때 쫓겨나는 것은 마찮
 가지인데 무슨 공영개발과 재개발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목동
 지 무슨법적근거로 보상을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당시에는 국회가 열린 일이 없으니 법을 개정했
 을리는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 일에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였으니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을 텐데 보상해주었다는 죄로 누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재개발법 20조 3항과 동시행령 40조 6항에 보면 세입자의 권리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데 정책집
 행자나 국회의원이 법을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법률에 분명히
 나와있는 것은 아무 해당이 없고 아무 법률조항이 없었던 목동은 신문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요란하
 게 선전까지 하면서 생색내는 것을 보면 이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구청, 시청, 민정당 국회의원, 각종 힘있어 보이는 사회단체에 수없이 호소하였으
 며 구청에가서 면담도 여러차례 하여 왔습니다. 시청에 가서는 매년 구청으로 가보라느니, 시장님을
 만나보려면 신청을 해놓고 집에가서 기다리라느니 하는 김빠진 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총선때 세
 입자에게도 보상을 약속했던 민정당 허청일의원은 오리발을 내밀며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지난 7
 월 8일 허청일의원 면담시 내용: 문-세입자 대책없는 절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직접
 커로 들었다. 공약은 선거때만 하는 것이고 선거만 끝나면 모른체 해도 되는 것인가? 답-선
 저전에 한말은 가옥주에게 재개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세입자에게는 노력해 보겠다고 한 것이지 하
 겠다고 한 것은 아니더라고 말하였다. 말에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지만 들은 사람은 수천명이고 말
 한 사람은 하나에 수천명의 귀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허청일의원은 커머거리들에 의
 해서 당선된 유일한 국회의원이 된다는 말 아닌가). 오히려 한술 더떠서 가옥주가 원한다면 강제철
 거도 할 수 있다느니 하면서 힘없고 백없는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번 말을 했
 으면 지키는 것이라 생각되며 소속 당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민정당에 보낸 호
 소문은 구청장명의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니 그리 알고 협조해라' 하는 대답만 왔을 뿐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는 식의 대답만 계속하고 시청에서는 집에가서 기다리라는
 대답만 계속하니 철거 다 끝나고 다 어디론가 쫓겨나면 그때가서 만나주겠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어말
 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무작정 철거되면 갈데는 없고 힘있는 작자들은 모두 더러운 짐승대하듯이 하
 니 그림 우리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목동의 세입자 얘기를 들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단결만이 우리의 짓밟힌 권리를 찾아줄 것이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불의의 세력들을 이겨나
 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만이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
 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 감히 생각하며 다시한번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주 애국 시인 여러분!
 우리가 다 쓰러져 가는 판자집 하나를 지키기 위해
 강파들에게 수배를 받고 질질 끌려가면서도 온몸을 던지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싸움의 승리는 결국 전 원주민 전 도시 빈민 나아가
 이 땅의 민주 애국 시범을 위한 싸움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외눈 항만 우리가 승리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나라가
 가난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증거이고 그것은 결국
 판주주의 세상이라는 증거 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0

다 같이 일어나 강파를 물리쳐
 나갔시다. 1

사당동 철거지역에서의 무혈의 광란과 학살을 고발한다!!

지금 사당동은 또 하나의 광주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상거는 헤아릴 수도 없고 증상자만 50여명이고 사경을 헤메는 사람도 3명이상입니다.
 11월 5,6,7,8일 저들은 천여명의 불탄배, 양아치들을 고용해 온 동네를 광란의 무혈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 폭력배들은 쇠파이프와 쇠꼬챙이를 갖고, 각목에 칼을 갖아들고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집집마다 뒤져 남자만보이면 무조건 난타했습니다. 또 삽으로 머리를
 내려찍고 햄머로 할머니의 어깨를 으깨버렸습니다. 쇠파이프로 구타당한 이층에서 던져
 버리고 또 다시 짓밟았습니다. 이제 15살된 황용삼군도 마구 쇠파이프로 구타당했고, 주민
 다섯명이 뺨칠로 손을 뒤로 묶어서 구덩이에 처박고 수십명이 단려되어 짓밟았습니다.
 이들은 허가받은 살인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데나무에 칼을 달아 배와 목에대고 아주머니
 를 건복대에 묶고 옷을 벗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아주머니는 옷을 모두 잡아들고
 칼로 가슴과 음부를 도려내겠다고 협박하는 야수적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위 민주화한다는 시대에 이런 광란적 살인극이 자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은 이러한 학살극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습니다. 아니 폭력배에는 불명 사복 전경이 섞
 여있습니다. 평소 구청농성등 많은 시위현장에서 날이 익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 어떤
 폭력배는 "누나, 또보네" 하기도 했고 한 아주머니가 "왜 또 왔어?"하니가 고개를 돌리는
 폭력배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폭력배는 무전기와 사진기를 휴대하고 전경차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저들 폭력배는 금강연회 "구청장이 하루에 시치미는 거적대기 시계가 나뉘도 좋다고
 했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이는 분명히 관과 공모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학살극입니다.
 노태우정권은 간사하게도 이 사건은 가혹주와 시인자의 충돌로 위장하고 있지만, 적지않은 사
 업의 모든 책임자는 현 정권이며 이러한 광란적 살인극을 조종하고 배후시주한 것도 현 정권
 입니다.
 우리 사당동 주민 일등은 살인 폭력을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학생들과 굳기 연대하여 우리지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길고 길까지
 사위 기어코 이 엄청난 만행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살기좋은 세상, 가난한 사람도 인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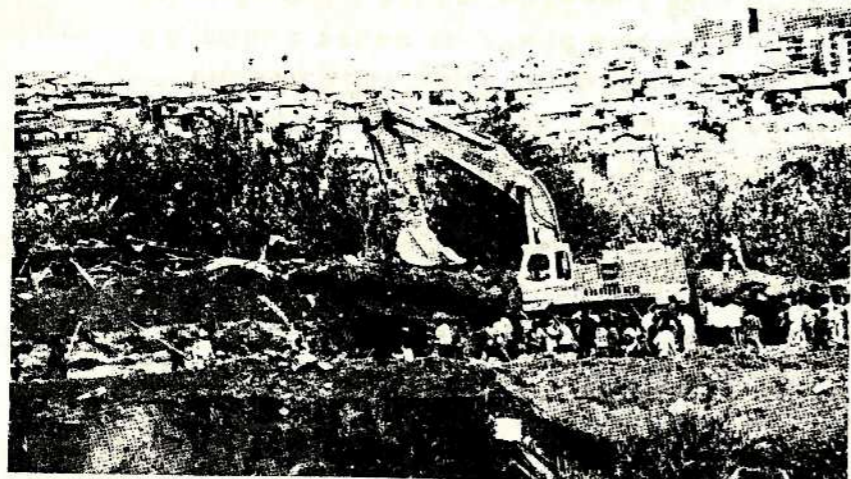
- 1. 사당동 살인 폭력 만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모두 처단하라
- 1. 동각 구청장, 관악서장을 즉각 구속하라
- 1. 살인 폭력배를 처벌하라
- 1. 장기용자 임대주택 보장하라
- 1. 철거주민과 부상자 보상금 지급 해결하라

사당동 재개발 폭력철거현장 확보

살인적 폭력이 춤추는 철거현장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24번지 도시빈민 생존권투쟁 확보

발행처: 서울시철거민협의회 발행일: 1987년 11월 21일
후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엎어놓고 머리터져도 또 싸운다

철거에 맞서 가장 열심히 싸운 사당동의 한명인 사당동 세입자 박순옥씨. 박씨는 철거장패의 피라이프에 아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에서 17비를 겪은후 "차마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을수 없다"며 다시 투쟁에 나섰다. 강판들에 맞아 쓰러져 신음하고 있다.



살인철거 규탄하는 사당동 세입자들

철거장패들에 의해 무참하게 얻어지고 많은 부상자들을 내다본다. 다시 용기를 잃고 나서 폭력에 관한 진상을 폭로하고 강판들, 폭부인들, 재개발 건설회사, 이들을 비호하는 현군사독재정권을 규탄하고 나선 주민들. 이들은 더큰 단결, 더 큰 투쟁만이 살길임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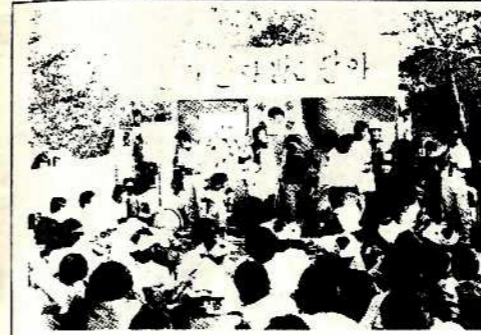
우리 도시빈민들은 왜 철거를 반대하는가?

우리 도시 빈민들은 모든 재개발과 철거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도시 빈민들은 오히려 하루 빨리 철거와 재개발을 우리의 손과 노동으로 기쁘게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1987년 전 노동자 독재 정권이 해서 한국 전입, 대량 산업, 현대 건설과 같은 독점 기업이 하고 있는 재개발과 철거에 결사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해야만 도시빈민의 당연한 임무가 있다. 그것은 독점 재개발과 군사 독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빈민들이 살아 온 집을 빼앗아 철거하고 철거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우리들에게 억·외라이프를 휘두르고, 최후단 소고, 강행하며, 구속시키고, 별 류의 온갖 짓으로

유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때문이다. 이런 강제 철거투쟁에서는 즉 건설과정에서는 도시 빈민의 결반인 건설 노동자들이 때때로 지게 노동하며, 폭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 시 고승 아미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아미프는 모두 독점 재개발의 것이 되고 우리 전 실 노동 빈민의 손에 겨우 한달 이십만원 만 감금으로 남아, 철거될 빈민촌으로 돌아 가 하루를 먹고 살 뿐이다. 이러한 건설 노동 빈민을 가혹하게 부러뜨리며,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재개발을 반대 한 재개발을 반대한다.

각목과 쇠파이프를 철거민들을 내리치는 철거장패들

철거장패들이 세입자사우실을 부수려 허물어오자 주민들은 이를 막기위해 옥단으로 싸우성을 둘러쌌다. 이에 철거장패들은 '정보'는 주춧돌을 주며 길 발길위로 둘러싸고 다시 각목을 휘두르게 만들었다. 강판지배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들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사당 산 24번지 주민들은 서울시 철거민협의회와 함께 추석 한가위 대동제를 열었다. 빈민이라고 멸칭이, 제사가 없었는가? 등은 비웃어주어도 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이좋게 서로 돕고 살고자 했던 이 놀이마당이 열린지 꼭 보통만에 이 정도에 빈민들의 피가 뿌려졌다.



④ 세입자 사우실 앞에서의 몸싸움

철거장패들이 세입자사우실을 부수려 허물어오자 주민들은 이를 막기위해 옥단으로 싸우성을 둘러쌌다. 이에 철거장패들은 '정보'는 주춧돌을 주며 길 발길위로 둘러싸고 다시 각목을 휘두르게 만들었다. 강판지배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들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② "사당동, 이땅에서 살고싶다"

일주일 동안 사당 3동은 무너져 내렸다. 깊은 김방배이 희망으로 구멍나 버렸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정은 등에는 매일 철거폭력에 으스러져 갔다. 한 두사람이 몸싸움하던 7-8명의 장래들이 있었고, 7-8명이 모여 철거를 막으려하던 20여명의 장래들이 각 목을 휘둘러댔다.

가난도 서럽게 살아가는

사건 진행 순서로 보는 철거

사당동 도시빈민 첩거반대투쟁 2년여의 경과

- Ⅰ 1985년 4월-12월
4월 세대위를 조직하고, 구청, 시청, 국회의사당, 경찰서, 명동 삼당 앞 등에서 12회에 걸친 적극적인 첩거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당 산 24번지를 첩거까지 재개발하여, 세대위 중심으로 세입자들을 결집해내었고, 대의 배포를 위한 유인물 10여장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10월 철거 예고장을 무력화시켜 막아냈다.
- Ⅱ 1986년 1월-12월
사당 지역에 대한 철거를 일단 방어하여 막아냈다. 저들이 세입자 지도부에 대한 매수와 회유로 공격해왔다. 이에 따라 세대위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건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그 투쟁성, 의식성,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갔다. 주민 총회, 단합 대회를 활용했다. 그리고 실제 동 철거 투쟁에 연대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 Ⅲ 1987년 1월-8월
사당 3동 주민들은 다른 첩거 지역의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 투쟁에 앞장섰다. 그리고 마침내 '서철협'을 조직하고 26개 지역 첩거민이 하나로 뭉쳐 투쟁하는데 주축이 되어 활동했다. 6월 반군사 독재 민주화 대장정에 사당 3동과 서철협은 공중의 적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도시 빈민의 민주화 투쟁에 힘찬 전군을 이어 왔다.
- Ⅳ 1987년 9월-11월
사당 3동 형제들에 대해 군사 독재와 대량 건설은 철거 양제 150여명을 앞세워 전면 공격을 해왔다. 사당 3동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오금-용문-연동-사당 2동으로 이어지는 강제 철거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이 도시 빈민의 적살에 대해 사당 3동은 빈민의 선봉이 되어 서철협의 빈민 형제들과 단결하여 결사적 투쟁을 실천했다.



③ 집기둥, 문짝들이 한중의 재료

철거장패들은 무찌러버려 매려 부수고도 모자라는 듯 분실투, 서기때, 집기둥 등을 모아 미구 불질러버렸다. 철거한 뒤, 그것은 "다시 이곳에서 살려고 하면 재 미웠다"는 무서운 협박이었다. 철거 전 건물들에 붙여 붙여있는 "주춧돌, 산파 들은 이곳이 북부민들의 무기장화하고 있음을 역설해 보여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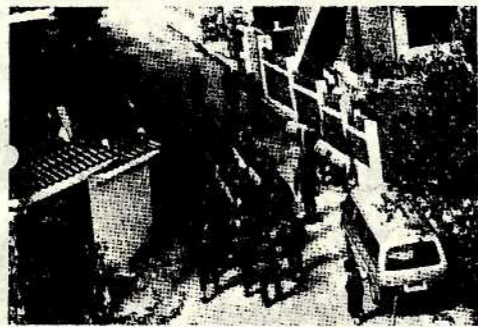
⑤ 주택조합 사무장이나 강판패?

해브라이프를 들고 있는 이사진이 이른바 주택조합 사무장이냐는 인내욕이다. 11월 19일 주민들이 살인철거건설상 폭력장패 규탄대회를 열자 "명화적으로 협상 하자"며 잔회에서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잡기 작전, 곧 그의 입에서는 "당치는데로 매려 죽여라! 몇 년 죽어도 내가 책임진다"고 외쳤다.

1987년 11월 21일(토요일)

사당동 재개발 폭력철거현장 화보

3면



전투경찰은 누구를 보호하러 나왔나?

철거장대의 폭력에 민원형제들과 이에 동조한 총퇴사대학 학생들 청년 학생들이 맞서 전투경찰이 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원의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철거장대들의 사무실 겸 거처인 장대들의 천막을 지키려고 나온 것이었다.



다시 덤벼드는 철거장대들

전투경찰에 의해 지주의 본거지가 보호받지 못하자 철거장대들은 안심하고 무세로 나뉘어져 다시 주민들을 습격해왔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용감히 맞서 시도되었지만 끝으로 끝이어서 결국, 최파이프 등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주민들은 수많은 부상을 당했다.

터전까지 짓밟다니... 반대투쟁과 살인적 철거모습

지옥 같았던 폭력철거... 묵숨건 반대투쟁 1주일

10월 19일 사망 3중 24번지에서 사당 재개발 대책 위원회와 서울시 철거민 협회에서는 '살인 철거 진상 및 폭력 강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사당동 빈민 형제들, 서울시 철거 지역의 형제들과 애국 청년 학도들 300여명이 이 대회로 모였다. 이 대회는 대령 건설이 고용하여 산위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면서 무자비한 폭력 철거를 자행해온 장대들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철거 장대들을 추방하는 투쟁은 도시 빈민에 대한 건설 재벌과 군사 독재의 전연적인 수탈을 폭력이라는 구실적인 투쟁이었다. 끝이 내주 대낮에, 전투 경찰 앞에서 19일 살인적 폭력과 만행이 저질러졌다. 10월 13일 철거 장대들 150여명과 북부인 300여명과 포크레인 2대를 앞세운 폭력 철거 부대가 침공해 온 날 이름 없는 시당 형제들은 이 날도 의롭게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철거 장대들이 피

투로는 각목에 감바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졌으며, 내리 찍는 상남에 말들이 찍혔다. '이 일광선을 다 죽여 버려'라는 욕설까지가 공포로 가슴에 박혔고, 장대들의 더러운 손이 속옷까지 찢어 버렸다. 14일 세입자 사무실을 때려 부수고 이를 막는 세입자들을 짓밟고, 이 무로 팔순 할머니 혼자 집을 보던 집에서 할머니를 끌어내고 집을 부수고, 일나간 집을 끌다 먼저 부수었다. 이를 사신 적인 신부도, 취재하던 기자도 장대들의 주먹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몸 아픔도 '죽어'고, 장대들을 잡아 경찰에 넘기고, '세 집을 부수나'고 함에도 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과 유혈, 그리고 파괴 뿐이었다. 10월 19일을 도시 빈민이 대동 단결한 폭력 철거 제1 투쟁의 날로 삼은 것이다.



어깨와 팔이 온통 피멍이든 아주머니



턱과 손에 붓대를 감고 입원중인 아주머니



철거장대들의 방패가 된 전투경찰

사진에서 보듯이 전투경찰들은 철거장대들 앞에 보인하여 분노한 주민들과 학생들이 던지는 돌맹이들을 막아주고 있고 그 뒤에 노란색 하이버를 쓴 철거장대들이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되자 다시 가세 동맹적인 철거장대들은 다시 주민 가슴에 나서게 된다.

4면

사당동 재개발 폭력철거현장 화보

1987년 11월 21일(토요일)

생존권을 위해 연대투쟁에 나선 빈민들과 이를 짓밟으려는 철거장대들



철거장대 물러가라고 외치는 주민·학생들

11월 19일 1차 총동원 빈민대표들과 철거장대들이 이룬바 현장을 떠나고 있는 사이 주민과 학생들은 "철거장대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상인의 철거장대들과 대치하고 있다. "우리를 이따서 살게만 한다! 시골을 이뤄갈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데..."



협상동안 다시 기습을 노리는 철거장대들

빈민대표들과 철거장대 대표가 협상한다고 만나고 있는 사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최파이프를 고쳐쓰고 강압을 동원하고 결국, 최파이프를 휘어잡은 산 아래를 내려보고 있는 철거장대들. 이들은 철거장대 대표가 다시 "최!" 한마디를 외치자 순식간에 산 아래로 쳐 내려왔다.

- (I) 도시 빈민 팔아 먹는 대령 건설 몰아내자!!
- (II) 살인 철거 자행하는 철거장대 물리쳐자!!

- (III) 빈민 학살 방조하는 폭력 경찰 각성하라!!
- (IV) 빈민 생존 보장없이 민주화가 웬말이나!!
- (V) 강제 철거 강행하는 군사독재 철거하자!!
- (VI) 군사독재 철거하고 민주민주 건설하자!!
- (VII) 빈민 형제 단결하여 빈민 생존 이룩하자!!



이한열 열사 장례에 참석한 빈민형제들

고 이한열 열사 장례식후 고인의 목숨을 앗아간 권두원 노태우 군사독재를 규탄하는 민주화 대행진에 도시빈민들은 모든 민주인사, 학생, 노동자, 농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진에 나서고 있다.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은 바로 민족적, 반독재 민주민주주의 투쟁의 한 부분이다.



26개지역 철거민들의 민주당사 연대농성

11월 14-16일 서울강남구 삼성동 26개지역 철거민들은 민주당사에 줄연대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 농성에서 자기권리인 주거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을 전개하며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민주주의적 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우리도 민주화투쟁에 발 벗고 나섰다...」

10·19 도시 빈민 부상자

- 김 미순(여, 43. 6주): 최파이프 각목으로 현신 구타당함 왼쪽 다리 부러져 기부수중. 진단 6주.
- 송 근순(여, 46. 2주): 딸·가솔·허리들을 함께 5·6명이 각목으로 집단 구타. 전신에 타박상.
- 신 동복(남, 27. 4주): 14일 귀가 중 철거 작업하던 장대들에 둘러싸여 주먹·각목으로 얻어맞고 쓰러지자 돌·벽돌 짓밟음. 감비백 열풍 부러진 진단 4주이나 투유송·합병증으로 추가 장기진료 요망.
- 박 땀수(남, 37. 3주): 원 다리까지 불구로 목발용 집고 다니는데 19일 열에 서 있던 중 장대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짓밟아 전신타박상.
- 신 기희(여, 38): '지 말간 마지' 임은 내 잡아죽여라는 명령과 함께 7·8명의 장대는 물러와 부상으로 머리를 찍어 괴롭히며 쓰러짐. 쓰러진 채 각목에 얻어맞으며 정신 잃음. 더욱 힘겨운 이마에 장대는 발로 전후를 밀어 넣음 50바늘 때림. 해면 용터 양쪽 눈살 사이까지 드러남.
- 박 승숙: 19일 강제 추방을 위해 산위로 오르다 이와 충돌한 철거장대들의 각목이 내리쳐져 괴롭혀질. 머리 10여 바늘 때림 후 곧바로 다시 산위로 올라 투쟁하다. 전신타박상 쓰러짐.
- 유 복순(여, 56. 2주): 장대들의 기습으로 도망치다 위에서 최파이프로 내리쳐 어깨 부러지고 쓰러질 때 다리들이 각목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쓰러져 신음함에 집단으로 짓밟아 머리, 감비백 다짐. 전신타박, 구토증세.
- 민 한섭(남, 50): 유복순씨와 부부. 열에 서있던 장대들이 전진추진하던 돌에 가슴을 맞아 쓰러지자 달려와 집단구타당하여 호
- 김 옥진(여, 50): 양쪽어깨 부러짐.
- 김 열지: 연동동 주민으로 투쟁했다가 최파이프로 머리 얻어 맞아 17바늘 때림 진단으로 양안.
- 김 수지(여, 50): 장대들에 둘러싸인 채 각목·최파이프로 전신구타 당하던중 머리터져 17바늘 때림.
- 홍 근순(여, 42): 머리·가솔·허리·허벅지등 온몸을 구타당하고 괴롭혀 살신당한 채 병원에 실려감. 팔뚝 많이 부러 온수상태였으나 후에 깨어남.
- 윤 기영(남, 26): 각목으로 구타당하던 중 용치뼈를 맞아 거동곤란함.
- 정 일출: 가슴을 내리치는 장대의 각목을 무심결에 막다 손이 얻어맞아 손가락 뼈가 으스러져 4주이상 입원요망 진단.
- 조 일출(송신대): 19일 대회에 동참하여 싸우다 장대들에게 집단구타. 목이 학생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왔다. 돌로 머리를 찍혀 괴롭히며 살신.
- 정 민수(송신대): 머리터지고 전신구타 전신타박상 쓰러진 채 집단구타 당하였고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깨어나지 않아 '한 학생이 맞아 죽었다'고 소문남.
- 채 수: 집단구타. 왼쪽팔 관절 부러짐.
- 김 열지: 머리중 전신구타. 몸뚱이 못 움직임.
- 박 열지: 왼쪽팔·다리를 구타당하고, 허리를 삼으로 찍힘.
- 조 일출: 집단구타. 살신.
-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폭력장대들의 살인적 만행에 의한 중·경상자 50여명이 있으며, 위의 명단은 19일중 병원에 2주이상 진단이나 입원한 빈민에 불과하다.

진정서

사 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당 3동 산 24번지에 살고 있는 1052 세대의
세입자들입니다. 그동안 저희 영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철거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늘 같이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입에서 흘러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이
정부 방침인 양 리플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옥주들의 위협 아닌 위협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9직 한 가닥 정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저희들을
저버리지 않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답변하신 서울특별시 시장님의 말씀 역시 이메일로
하여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해석을 비리는
사람도 많기에 하늘이 저질 듯이 무뎠어 내리는 심정을
의누를 수 없었습니다.

대책 없는 재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가옥주
들만을 지칭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입자는 사람죽어도 못 드는 것이지요? 아니면 영세
세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이지요?

저희들 세입자의 대부분은 몇 십만원 보증금에 월 세
2~3만원씩을 내며 막 노동이나 행사, 파출부 등으로

하루 하루를 선명하는 영세민입니다.

평균 가족 수도 최하 5인 이상인 데다가 겨우 방 한 칸에서
온 몸을 오그리며 살아가는 세대가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직접 이곳을 찾아 오셔서 확인 해 보신다면
그 실제의 생활에 더 더욱 놀라시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재 개발이 된다면 주위의 땅 값 집 값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랐으며 많은 부동산업체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무리가 재개발자들이 대부분
집을 팔고 이주했으며 영세 세입자들은 주인 얼굴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세고 선풍 가스가 스며도 저희들 손으로 고치며 살았고
들고 보도 못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나타나서는 피박 피박
집세만 받아 갔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험악하기 이를 게
없는 말파 눈조리로 집을 비우라고 성화를 올리는 판입니다.

그런데도 가옥주나 가수용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
가는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너무나 억울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이런 현실을 억망하기에 앞서 자신이 못 배우고 못 사는 것만을
한탄하고 자기들 입입니다. 재 개발 사업이 불량 주택
을 개량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기관
결 저희들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재 개발 구역안에

사는 저희같은 영세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사업처럼 원망 하게 되는 저희들의 실상을 전정 장군은 알고도 모른체 하는 건지 모르고 계산전 지 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노동이나 행정 과중부담의 직업이 대부분인 저희들 여기에 10년도 넘게 뛰아 온 이 타격을 떠나면 당장 살 길조차 막막한 실정입니다. 환풍 두풍 버는 벌이 여기에 티유기 연질이 있는 가까이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말 못하는 동물도 해가 지면 제 굴을 찾아 가고 날 짐승도 찾아 갈 제 등지가 있다는데 반쪽의 영장이란 사람이 갈 집이 없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코 앞에 닥친 철거를 앞두고 매일매일 불안과 한 속에서 못한 저희들 만들 탓하고 싶자니 가슴에 맺힌 이 복바치는 설움과 한 맺힌 호소를 들어주실 사 이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부디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곳의 실상을 직접 살피기 주어 살피셔서 세입자의 대책에 반등 할 수 있는 방책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바라건대 재개발법 20조 3항과 42조 6항을 참조하시어 정든 산 24번지 산에 저희들 영세 세입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 해 주실 것을 1052 세대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맨주먹 붉은 피로!!!



10.19 빈민항상 현장

산으로 머리를 썩히고, 그 위에 흙을 받아 넘어 고동에 신음하던 신기희 씨.

부상자 명단

- 김미순. 여. 43.6주. 쇠파이프 전신구마. 머리 부딪침.
- 송근순. 여. 46.2주. 팔, 가슴, 허리등을 골목으로 쫓단 구마.
- 신동복. 남. 27.4주. 갈비뼈 연결 파괴.
- 박태수. 남. 37.3주. 전신구마. 왼쪽머리 붓기.
- 김수지. 여. 송실대. 전신구마. 머리 타격. 17바늘 꿰매.
- 김복진. 여. 50. 양쪽 어깨 부딪침.
- 유복순. 여. 56.2주. 어깨 부딪침. 쇠파이프 머리 맞고 머리 광비타격등 이상. 전신마비 증세. 구토 증세.
- 박한섭. 남. 59. 동토 가슴을 썩히고 전신구마. 호흡근란.
- 김명자. 여. 38. 머리 17바늘 꿰매.
- 홍연순. 42. 머리 가슴 등 전신구마. 혼수 상태.
- 신기희. 여. 38. 산으로 머리를 썩고 그 위에 흙을 받아 넘어다. 59 바늘 꿰매.
- 윤기영. 남. 26. 등 쇠막대. 골목구마. 거동 못함.
- 조양호. 송실대. 동토 머리를 맞음.
- 정인수. 송실대. 머리 타격. 팔 등 전신구마.
- 김희미. 머리 머리 전신구마. 부을 못 움직임. 전신구마로 왼쪽머리 인대 늘어남.
- 박광택. 전신구마 맞음. 호흡근란.
- 고영순. 전신구마 타격.
- 박영용. 왼쪽 팔다리 구마. 머리를 산으로 썩임.
- 정금순. 손가락 뼈 나감. 머리 부상.
- 채영수. 전신구마. 왼쪽 팔 골절.
- 박송숙. 학구 발 밑으로 머리 구마.

이것이 10.19일 삼당동 빈민항상의 광과이다. 부상자 명단을 읽어 내며 가슴속고 장민함에 처를 받고

본노할 수 밖에 없는 양나니들의 인간사상이었다.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철거광패들의 만행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다. "야, 이 새판년아, 이리야박, 가랑이를 뭉개어 버려" 등의 욕설을 곁부으며 부녀자들에게 잔인한 무행을 하고 심지어는 여자의 아랫도리까지 벗기고 발손 핏자국을 내는 등, 너무나도 잔인하여 참을 수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여 광패들을 잡어 넣어 보니, 그 시간도 안되어 나와 동네를 횡행하고 다니고, 마도 화가 치밀어 파출소 유리창을 박살내어 양의도 해 보았다.

모두가 어사했다.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지역을 지키고, 광패를 몰아내기도 하였다. 10월 19일 '서울시 권거민 협의회'와 우리들은 삼인삼거 및 철거광패 구판대회를 마치고 양나니들을 몰아내기 위해 포크레인용 망개를 몰아갔다. '망개'라는 소리와 함께 파출소 서가 각부 에 막아 쓰러지고 나니 함성같이 광패들과 부딪혔다. 온갖 상소리와 돌을 던지는 광패들이 우리들의 기세를 타 볼 것을 하였다. 그러나 7-8미터나 높은 그 지역에서 부수기 돌을 던지자 광패들은 결사적으로 겁이 들었고, 각목, 쇠파이프, 산 등을 손에 손에 움켜 쥐는 사이 그 불같은 재개발 조합 사무장 안태욱이라는 남이 협상을 하자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어떠한 협상일지라도 광패들의 우선적 철수를 요구했고 안태욱이라는 남은 "광패가 아니다. 대립건설 직원들이다." 하며 포크레인 등 장비들을 저지키 위해 철수할 수 없다, 또는 뽕사람들과 협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수선을 핏더니 오후 2시 30분 대박상을 시작했다. 이이 흥동한 경찰들은 우리들과 광패들 사이를 일부 차단 하는 것 하더니 그 불같은 삼상, 삼목에 광패들도 부딪히며 우리들에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혼란 최후판 한 방이 사를 발판하고 있었다. 전경 옷대가리하고 대립하고 후덕숙된 하더니 세상에 그렇게 엉정중립을 지키는 전경들이 세상에 있을까? 광패들을 몰아내려고 우리들을 향하여 방패를 때 부는 엉정 중립, 손에 전봉이 나도록 그 막은 경찰들이었다. 이저전 경찰들만 죄목적으로 나섰다면 10,19 번민 한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안태욱과의 협상으로 부수고 중지하고 있던 중 광패 20여명이 양으로 돌아와 돌을 던지자 공격을 멎게 하고 "내가 책임질테니 저 삼년들 죽여!" 안태욱의 명령과 함께, 100여명의 피에 굶주린 부대들은 단지는 대로 밟고 쪼고, 쪼던 것이다. "삼년 부세오!"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양나니들의 의미미 절규에 울아온 단 쇠파이프, 삼의 비전듯한 총기미였다. 전경미에서 부상자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는 최후 환인 사상을 의할 수생 대를 처임 또 한편 잔인하게 원한이 갔다.

미행공을 몰아내 공포에 삼목서 민주양애 광의 농성을 위해 갔고, 병환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진상조사는 커녕 관공수 의원이 광판 왔다 갔을 뿐이다. 더욱 가슴 스티는 것은 10월 31일 "우리가 마음만 편으면 심판에 커다란게 광고를 때리면서 너희들을 몰아낼 수 있다." 며 찬바람 단이하도 피해 볼려고 만든 간이 전막 주회를 포크레인으로 한길 닦게 파 놓고, 양나니들이 회의 장소인 공터에 들어 앉아서 저항하자 4명이 한조로 광다리를 들어 밀거기해 내 쫓겨치고, 돌도 머리를 쪼는 등 조급의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전막아 왔다.

우리들의 참혹한 피해와 심상을 확인 해 보라!

광패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전 철거민은 단결하여 싸워야 하며 모든 핵국 민주 세력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약삼 책임자, 관할 서장을 즉각 구속하라!!!
- 철거민들 삼상하는 철거광패 몰아내자!!!
- 도시민인 광아라는 대립건설 몰아내자!!!
- 빈민생존 보장회의 민주화가 원망이냐!!!
- 삼인철거 자행하는 군부독재 마도하자!!!

서울시 권거민 협의회와 사당3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 폭력 철거에 대한 진상조사서 ○

9월 2일 오전 9시 30분경 사당 3동산 24번지 놀이터에는 손에손에 함마를든 무장광패들이 나타났다. 함마부대 약 130여명, 경찰서형사 2명, 추진위가족주 200여명등 약 400여명의 철거 부대들이 강제철거를 위해 모여든 것이다. 재개발바람에 눈이 돌아버린 투기꾼들과 추진위사무장이 앞장서 사전 예고없는 만행을 스스럼없이 저지러지는 것이다.

철거를 저지하려고 나서는 주민들에게 돌로 발을 내려쳐어 내리고 양나니들의 옷을 찢고 심지어는 부러자마져 찢어내고 "내마누라 짓이 아니니까 더지지않을 정도로 쥐어주마" 하며 여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렸다 게다가 만나가 된 양나니들을 밀어뜨리고 "밟아 죽지않을 정도까지 밟아버려" 하면서 온갖 쌍소리와 함께 무차별 폭행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나니들 4명과 아파 1명이 부상당했으며 그중 한양나니는 광패놈들이 목을 조르고 시멘트 바닥에다 짓이겨 떠미는 바람에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갔고 산소호흡기에 의해 소생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송장만 치우지 않았을뿐 살인이 벌어질뻔한 잔인하고 참혹한 광경이었다. 경찰서 형사들은 밀진대낮에 살인에 가까운 폭력을 눈앞에 두고도 못본척하였다. 용본한 우리 주민들이 동장실에 항의하러가자 동장은 "나를 때리면 맞고 사표를 쓰려면 쓰겠소"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였다.

4시경 함마부대가 물러가면서 그중 1명이 "시에서 시켰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저녁 8시경 주민 200여명이 다시 모여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수 없다하여 재개발추진위의 부위원장집으로 물러갔으나 이미 피신후였고 약 30분간 농성을 한뒤 파출소로 물러가서 항의를 하였다. 그런데 파출소에서는 뭐하러 왔느냐 맞았으면 진단서 떼어오라 라는등 기가막힌 얘기가 나왔다. 세상에 무법천지로 광패들이 날뛰고 그걸 둔자들이 증거 대보라는 식으로 나오니 힘없는 주민들은 진단서를 떼어아할 정도로 맞으라는 이야기이란 말인가? 억울함과 실용과 분노로 얼룩진 밤은 어느새 밝았다.

9월 3일 아침 9시경 우리주민들 100여명이 모여서 어제의 공포와 분노를 생생히 기억한채 동장실로 물러갔다. 그러나 동장이 없었고 우리들은 노래부르며 농성에 들어갔으며 1시간뒤 동장이 들어오고 오전 11시경 격분한 우리주민들은 89번 중점 부근의 도로로 뛰쳐나가 자동차 통행을 막고 항의했다. 11시 30분경 전날 온갖 수모와 폭행을 당한 양나니들이 재개발 추진위사무실로 본대를 보여주려 물러갔다. 그러나 벌써 문이 잠긴후였고 분에찬 주민들은 추진위 간판을 때어버리고 유리창등 기물일부를 부셨다 그래도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죽일듯이 달려드는 함마부대들, 구경만하는 경찰들, 돈뎀폰에 눈이뒤집힌 가족주놈들등 머리속에 뒤엉키면서 다시도로를 차단하고 항의농성하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전경차 2대가 급히 달려오고 전경 100여명, 사복연행조 50여명이 물러와 주민 15명을 연행하고 추진위 사무실을 신주단지모시듯 경비를 쳤다 오후 1시경 나머지 주민들이 다시모여 회의를 갖은 우리들은 저녁을 일찍 지어놓고 4시 30분경 동사무소앞에 집결 각지역 주민대표형제들과 함께 우리주민 70여명은 관악경찰서로 물러갔다. 쪼없는 사람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농성을 계속하던중 보안과장이 나와 11시까지 내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일단 동네로 돌아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으려고 동네놀이터에서 대기하여 기다렸다 10시경 12명, 10시 40분경 2명, 11시 30분경 1명을 마지막으로 모두 풀려나왔다.

놀이터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주민들은 다음 강제철거는 우리들의 단결된 힘으로 막자라고 결의를 다지며 헤어졌다.

= 살인철거 중단하고 빈민생존 보장하라!! =

1987. 9. 30.

사당 3동 24번지 세입자 일동

결 의 문

지난 8월 29일과 9월초에 자행된 창신, 신당, 사당동 강제철거에 분노를 금할길 없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각 가정집에 무자비하게 최루탄을 난사하고 합마를 휘두르는 철거장패들이 보다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철거를 감행하였다.

더우기 놀라운 사실은 재개발 조합이 철거를 위해 전과자 출신의 장패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해 어찌까지 웃고 살던 이웃에게 합마와 주먹으로 협박을 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들은 철거장패의 폭행과 부녀자들에 대한 추행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서 목인과 암묵적 지지를 했다는 것은 이제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3개지역 철거시기와 철거수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서울시 철거민들 중심으로 힘을 결집해가고 있는 이때, 철거민들에 대한 도발적 공격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부녀자들의 옷을 찢고 심지어는 장패들이 부녀자들을 가두어 놓고 옷을 벗고 위협을 하는등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마지막선까지 허물수 있던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없이 산다해도 내 마누라가 그런 짓을 당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우리들은 이번 사태에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는 점에 가장 분노한다.

이제 분명히 선언한다.

3개지역 강제철거는 26개 지역에 대한 위협이자 협박이라 선언한다. 투기꾼과 복부인의 이수라장인 재개발조합과 경찰당국의 만행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현재의 민주화가 얼마나 거짓이며 웃기는 소리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더이상 물러설곳 없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수 있는 그날이 올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것입니다.

결코 물러설수 없는 것이다.

철거 투쟁 만세! 도시빈민 만세!

- 민주화 한다더니 살인철거 웬말이나!

- 죄없는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 철거장패 목인하는 시경국장 물러가라!

1987. 9. 30.

신당·창신·사당 3동 도시빈민 일동

7. 오금동

1) 지역 개요

행정구역상 강동구 오금동 353번지 17-20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500세대가 살았다. 지역 주민 중 많은 이들이 해방촌과 흥은동 철거시 집단이주한 사람들이다. 이곳을 철거하는 이유는 선수촌, 기자촌과 같은 올림픽촌을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철거 당시 시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소유의 대지는 평당 30만원 선에서 보상. 2) 가옥부분은 시영아파트 입주권 보상. 3) 세입자 부분은 전혀 보상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 대책은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근처 아파트 건설과 투기 등으로 인한 지가상등으로 실제 평당가격이 150-200만원 선이며, 보상금으로는 중산층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하며, 주민들은 단독주택을 원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2) 일지

1986년

4.22 : 재개발조합측이 4월30일까지 철거 통첩. 세입자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재개발조합 현장사무실에서 농성. 조합간부들 도피.

5.7 : 농성 16일만에 전경 300여명에 의해 강제 해산됨. 조합 서류 인근 동네 새 사무실로 옮김.

5.18 : 5월20일 준공식을 앞두고 13채를 사전합의하에 철거.

6.3 : 조합사무실에서 충돌하여 13명 구류, 2명 폭행혐의로 구속.

6.9 : 주민 연대모임에 13명 참석. 사회 각계에 호소문 배포.

6.11 : 10시 반경 똥물 철거사건 터짐. 일당 2만원씩 고용된 인부, 장패 30여명이 조합장의 지휘로 철거 감행하였지만, 경찰들 수수방관함. 오후 2시에 동네 앞 남부순환도로 차단하여 연좌 시위를 30분간 벌임. 철거반원들에 의해 전경속썩 아들(당시 7세)이 똥물을 뒤집어 씹.

6.12 : NCC 목요일예배에서 주민들이 사건의 전모를 폭로함. 주민들의 요구 조건은 "재개발, 그 자체를 반대", "그대로 살고 싶다"였음.

6.13 : 이옥순, 이금분씨가 성동구치소로 구속, 송치됨.

- .11.? : 강제철거 자행됨. 이후부터 오금동 세입자들은 천막을 치고 살아 감.
- 1987.9.? : 천막촌을 철거하겠다는 게고장이 날아듬.
- .10.? : 주민들 각계 인사들, 특히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 진정서 보냄.
- .11.9 : 노대표로부터 "우리는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음.
- .11.10 : 오전 9시 45분경부터 전경 200여명, 철거반 100여명, 가옥주 조합원 500여명, 대림건설직 원 30여명, 구청-동사무소 직원, 형사 등이 동원된 상태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됨. 철거반들은 빈 집에까지 들어가 살림살이를 못 쓰게 만들고는 가재도구를 트럭에 싣고 여기저기 내팽개 침. 전경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철거반원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조직되었다", "이곳 철거는 재미없다" 말까지 서슴치 않음.

3) 관련 자료

- 박명식, 진정서, 1986.2.
- 오금동 철거지역 세입자 김용순 외 312명, 진정서, 1986.4.
- 강동구 오금동 세입자 주민 60여명, 고발장, 1986.6.4
- 오금동 독실가, 오금동 동물 철거 항의문, 1986.6.12.
- 오금동 철거민 일동, 철거현황, 1987.7.
- 오금동 철거민, 오금동주민의 호소.
- 강동구 오금동 세입주자 이주대책 준비위원회, 호소문, 1986.6.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빈민 분과위원회 등, 빈민투쟁속보 6,7,8호, 1987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주민신문 사건속보, 1987.9

No.

!!살인적인 강제 철거네 조롱하여!!

오금동 세입주자 여러분! 오는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랑했습니다. 인간의 칼을 쓴다는
조러히 행할수 없는 행동을 한 재개발 조합
원 들과 조합원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의 만행을
우리는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의 권리인 행복하여야 할 권리를 아구
깃잡고 있는 저들은 인간일까요? 짐승일까요?
우리는 왜? 저 짐승같은 인간들에게 랑하리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최근에 이르러 우리의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세입자 여러분의 가족이 구류를 받고 또 그들은
구속까지 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기는 투기꾼을 위하여 가난한 우리들을 강제로
내쫓을 러고 하리있는 경찰과 투기꾼의 합종
각적에 의한 탄압이 있습니다.

정작하게 가난하게 사는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또 국민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한발짝이라도 물러선다면
우리는 갈 곳 어디를 가겠습니까?

세입자 여러분! 저에게는 보증금 10만원이 월급만
원 알아야 저에게는 100여만원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론을 갖고서 버려가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물러서면
거리의 질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생각 하여 보십시오. 이곳에서 대책 없이
꽃피는 꽃을 경유는! 어린아이들에게 업고
뛰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길거리에서 방황
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생각만 하여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세임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내가 사는 이곳은,
산의 터전을, 어떠한 희생도 감수 하고서라도
사수 하여야겠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하여 가난한 세임주와 이지만 내친리
생존권을 지켜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자면 세임자 여러분은 굳게 뭉쳐야
합니다. 굳게 뭉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길거리를 내 쫓겨갑니다. 여러분이
굳게 뭉칠적에 오늘과 같은 비인간적인
수호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임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은 강제 철거
하러져 폭력배를 종용하여 내기시켜 놓은 강연회

② 또한 저들은 살인적인 철거를 하러져 한미와
를프를 준비한 사실을, 똑똑히 보십시오.

③ 위주사건을 보드라로 우리를 강제로 내쫓으려
하는 저야수 같은 재개발 조합의 만행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투기꾼(재개발조합)
들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에게 우리가 왜 순여
분여 벌고 또 벌며 철거를 받아들라고 해야
한단 말입니까? 흥분할 따름입니다.

④ 폭력배 철거원들은 우리 세임주와와의 의사와
반개 없이 철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세임주와 여러분!
여러분이 굳게 뭉쳐서 단결리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의 보습라리는 이렇게
우더져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는 해야 합니다.

⑤ 씨입주라 여러분!
 여기 인간의 칼을 쓰려는 도끼의 할수 없는
 짙은 적야수 같은 조합장과 부조합장은
 이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자행하였음나
 적야수같은 자들은 우리의 리아 눈물을
 먹고 사는 천인공노할 짐승들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성스러운 위야 광산엔 부역에
 또 그곳에 분당을 꾸린 저들은 하늘의
 심판에 있으리라! 씨입라들의 심판이
 있으리라! 규탄한다! 저 악마들을!
 오! 신이여 인간의 칼을 쓰는 저들을 멸하시어.

⑥ 여기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천진난만 하게 카라나는 이 어린아이에게
 이 무슨 쓴 뼈악입니까? 가난한 씨입주라
 부를 들은 죄입니까? 버려한 잔혹에 의해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분당 세계를 받아야
 한탄말입니까? 부자가 우리의 생존권을
 주장한 탓에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림니다. 이것의 씨입주라여
 어찌 하오리까? 이 원통함을 어찌 하오리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안걸치 아니하면 여러분의 ^{나라} ~~나라~~
 조국의 자식이 이 어린이와 같은 상태를 재현
 될것입니다. 여러분 재계반 조합을
 다같이 규탄하십시오. 서술시를 성토하십시오
 투기관 두둔하는 간사한 우리들을 성토하십시오.

⑦ 이 아이의 엄마에 통곡을 보십시오.
 왜? 통곡하여야 합니다. 누가 이 아이의
 엄마를 통곡하게 하였나?
 이는 대책 없이 길로 내쫓을 려고 하는
 끝없는 서술시와 여수같은 투기관 조합과
 이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의 합동 연출에
 의한 통곡입니다.

⑧ 이 사진은 작출소장에게 울며 빌며
 폭력배를 불너쳐 갈라고 하는 주민의
 모습입니다. 그러 ~~한~~ 법치 국가의 경찰이라고
~~말~~ 하는 우리의 경찰은 폭력배가 왔을시
 즉시 폭력배를 불아내지 않고 두시간여
 폭력을 휘두른 뒤 폭력배의 퇴거를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폭력배의 두시간여 난동을 부리며 체류
하는 그시간 동안에 우리의 경찰은
수수 방방과를 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① 투기판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와 경찰의 방방
하네 우리의 삶의 보습자리는 이렇게 여지없이
과외 되었읍니다. 세입자 여러분! 언제든
우리의 보습자리가 이렇게 과외 될것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삶의 허전을 과외
하며 우리를 내쫓으려 하고 하는 재개발 조항은
즉시 해산하라! 그리고 세입자 대책 없는
강제 철거 즉시 중단하라!

② 전주하는 세입자여!
그대의 고통은 울분의 절규는 우리 모두의
절규입니다. 그대의 아픔은 우리 모든
세입주자의 아픔입니다. 그대의 통곡에
우리 모두의 통곡이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우리 모두 통곡 합시다. 세입주자의 철거를
우리 함께 막을 힘으로 싸워 통곡 합시다.
철거하는 모든 땅을 보며 우리의 권리를

백한 강항으로 통곡 합시다.
이북한 싸움을 울분으로 끝내려
저 간사한 우리들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으
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픈 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싸워나갑시다.
세입자 대책 없는 재개발을 우리 손으로
막읍시다. 여러분 싸워나갑시다.
우리의 목적을 끝까지 관철시킵시다.

세입자 여러분!
희침시다!
서울시는 합동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이곳에서 산수있는 권리를 인정하라!
서울시와 재개발은 폭력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세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986. 6.

강릉구 모교동 세입주자 인동

No.

영세민 세입자는 통곡한다.
 가난하긴 힘이 없는 세입자는 살고자 하는 곳에서
 조차 기웃대려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길거리를
 내 쫓겨야 하는가?
 가난하지만 이웃끼리 정을 주고받으며 평화
 롭게 사는 우리 마을이 어느날 갑자기
 촬영장으로 변했다.
 건설부가 시나리오를 쓰던 투기꾼 주연에
 서순사가 제작, 연출하는 합동재개발이란
 제목의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으니
 영화 제작과 원! 여보 투기여사! 당신에게
 출연료는 시유지를 분하해줄 테니까 나하고
 짜짜공 합시다. 하니 간사한 ~~투기~~ 주연 연
 하는 반응 그렇게 합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
 는데 원! 그런데 주연하는 연한테 출연
 료를 용당 시유지로는 주었더니 엑스트라(세입자)
 출연료가 없네! 배짱 좋은 연출가놈 원!
 엑스트라를 큰데는니 촬영장을 그냥 떠나거나
 이 연출가놈 김병조 랐나 떠나기엔 쉼 떠나
~~어라~~ 어라 똥똥에 똥똥에 튀길 년놈아!
 몇년전에는 백과 사전에든 합동재개발
 이란 단어는 보지 못했었다.

E-HWA

No.

~~해피~~ ~~합동~~ 백과 사전에든 없던
 합동재개발이란 제목을 붙이리 만
 영세민 세입주자는 통곡한다 그런
 영란 제목을 바꾸거라

 오군님 득성가의 득백

E-HWA